

교회 회복을 위한 식탁공동체 연구

청주서남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장승권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 © 2022 Seungkwon Ja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Meal Table Community for Re - Church

A Case Study of Seonam Church

Seungkwon Jang

Cheongju, Kore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eek the restoration of the health and Mokjang community of the church in the midst of the crisis of COVID-19. Due to the worsening of the pandemic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restricted “worship” and “meetings.” As a result, the regulations were restricted in the religious life of the members, and inevitably they neglected church services and had to experience the weakening of their faith. Now, this situation is not only temporary, it is becoming a permanent condition. Therefore, the church must prepare for the ‘Beyond Covid-19’ era in the ‘With Covid-19’ era. To this end, the researcher is convinced that the first thing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to recover is the practices of the early church.

The early church is the most biblical church, and it is the kind of church that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the Lord expected. Therefore, above all else, the movement to restore the pastoral community is very appropriate in order to carry out this early church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All the members are called to the ‘table community’ to eat and drink ‘bread of the earth’ and ‘bread of heave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pastoral community. The Lord's Table was the 'Table of Life, Table of Salvation Community' that invited and welcomed the disciples, and it was the table of participation i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his invitation to the Lord's Table continues even now to the world, and it is the holy mission of Christians to share God's love and grace through the 'Table Community', and to participate in the gospel work and salvation work, and to work together.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of the table community that is a necessary task to establish a pastoral community in order to restore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in a biblical and historical dimension.

국문초록

교회 회복을 위한 식탁공동체 연구

청주서남교회를 중심으로

장 승 권

청주, 한국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건강성과 목장공동체의 회복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판데믹 상황의 악화로 방역당국은 ‘예배’와 ‘모임’을 제한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신앙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 상시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With Covid 19’ 시대에 ‘Beyond Covid19’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초기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한다.

초기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교회의 모습과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목장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은 매우 적절하다. 모든 성도들은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땅의 빵’과 ‘하늘의 빵’을 동시에 먹고 마시는 ‘식탁공동체’로 부름을 받는다. 주님의 식탁은 제자들을 초대하며 환대하는 ‘생명의 식탁, 구원의 식탁공동체’였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식탁이었다. 이러한 주님

의 식탁에로의 초청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식탁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역사, 구원역사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식탁공동체가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장공동체, 곧 목장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x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II. 교회의 위기와 회복	8
A. 교회의 위기	9
1. 교회의 본질	9
2. 교회의 위기	20
3. 교회 위기의 극복	24
B. 교회의 회복	33
1. 성육신적 교회로의 회복	35
2.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	41
3. 목장교회로의 회복	51
III. 교회와 식탁공동체	56
A. 공동체	56
1. 교회공동체의 의미	56
2. 식탁공동체의 의미	59
B. 성경의 식탁공동체	62
1. 에덴 식탁공동체	62
2. 광야 식탁공동체	66
3. 가나안 식탁공동체	74

4. 예수 식탁공동체	77
5. 천국 식탁공동체	90
IV. 목장공동체 세우기	95
A. 청주서남교회의 상황	95
1. 목회환경	95
2. 목회계획과 비전	96
3. 교회개혁과 실천	101
B. 목장공동체	108
1. 목장공동체란 무엇인가?	108
2. 목장공동체의 필요성	112
3. 목장공동체의 유익	119
C. 목장사역	129
1. 목장사역을 위한 교회 행정	129
2. 목장사역의 실제	131
a. 목장의 구성과 유형	131
b. 목장사역의 과제	133
c. 목장사역의 유의사항	137
d. 설문조사와 인터뷰	139
V. 결론	150
A. 요약	152
B. 제언	154
참고문헌	158

표목차

<표 1> 한국교회 신뢰도	20
<표 2> 청주서남교회 개혁과제 현황	104
<표 3> 건강한 교회공동체	110
<표 4> 구역과 목장공동체 비교	122
<표 5> 목장공동체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	141

감사의 글

우리교회는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구역모임’에서 ‘목장공동체’ 사역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그 목장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사역의 작은 열매입니다.

그동안 본 박사과정을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Lenord Sweet 박사님, 조병호 박사님,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교회 교역자(부목사: 이진우, 조성진, 이나라, 조광태, 이동규, 이준원, 김나형 / 전도사: 진은영, 임혜진, 정지원, 윤이나), 장로님(최철용, 윤인근, 조용환, 홍상택, 우대인, 유욱형, 김용제, 한기수, 이덕윤, 박동수, 박용문, 이승진, 배석록, 박향란, 최상윤, 김춘곡), 직원들과(김성만, 김준백, 김종희, 김현미), 목장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목자, 목동, 목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생 믿음과 삶, 그리고 목회의 모델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부모님과(장인순 목사님, 이해주 사모님), 장모 김성님 권사님, 사랑하는 아내(한계희님)와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태론과 세론)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장 승 권

I. 서론

A. 연구의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환발 ‘COVID-19’은 판데믹(Pandemic, 대유행병)을 가져왔고, 전 인류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정부가 WHO에 전달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초의 코로나 확진 사례는 2019년 12월 8일에 진단되었다고 한다.¹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감염이 있다는 사실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시인하지 않았다.² 이렇게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은 2021년 2월 한국을 강타하였고, ‘COVID-19’은 ‘비접촉시대(Untact Society)’를 활짝 열어 놓았다. 그래서 B.C는 ‘Before Corona’와 A.D는 ‘After Disease’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COVID-19’의 여파로 교회마다 교인들의 출석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교회의 재정 수입도 감소하는³ 등 교회 운영에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2년이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판데믹(Pandemic) 상황으로 국내적으로는 6만여 교회 중 1만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문을 닫았으며 미국 내 한인교회 역시 10%가 문을 닫았다. 2022년 1월 25일 재미한인기독교 재단(KCMUSA)

¹ John C. Lennox, *As Whew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홍병룡 역,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까」 (서울: 아바서원, 2020), 24.

² [theguardian.com/world/2020/mar/13/fist-covid-19-case-happened-in-November-china-government-records-show-report](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3/fist-covid-19-case-happened-in-November-china-government-records-show-report)(2020.3.23 접속).

³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청주의 일반적인 교회의 2020년 재정결산은 예산의 60%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청주서남교회는 예산의 81%로 결산하였다. 2020년 청주지역 대부분 교회는 2019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청주서남교회만은 교회 부채상환을 위한 ‘천사운동’을 통하여 오히려 100%에 가까운 플러스 결산을 하였다. 그러나 2021년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운 예산의 109%를 달성하였다.

에 따르면 2019년 3514교회에서 2798교회로 약 716교회(20.4%)가 문을 닫았다. 한인 교회 약 70%가 교인 100명 이하 규모이다.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접촉사회(Untact Society)로의 전환이 접촉 공동체(Contact Community)인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예배당 예배를 기피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감염확산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교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⁵ 그래서 따라서 목회적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20년 2월 대구의 신천지 집단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량의 확진자를 발생시킴에 따라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또 일부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역시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상식과 양식을 포기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COVID-19'에 대한 교회의 방역 대응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오해하게 했으며, 급기야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적대적 감정과 태도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장애로 다가왔다.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시행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기독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32%)', '이중적인 사람(30%)', '사기꾼 같은(29%)' 이미지로 드러난 반면에 가톨릭이나 불교 신자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

⁴ 「국민일보」, 2022. 1. 26. 30.

⁵ 'COVID19'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을 'Corona Blue' 라고 부른다.

따뜻한’, ‘윤리적인’, ‘절제하는’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⁶ 2021년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⁷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코로나 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 팀은 여론전문조사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28일 ~ 9월 1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20.5%), 불교(5.4%), 가톨릭(4.9%), 그리고 기타 종교(1.3%) 순이었다.⁸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72.1%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엔 18.2%로 크게 감소하였다.⁹ 코로나19 이후, 주요 예장통합, 예장합동, 감리교, 예장고신 등 주요 4개 교단에서만 약 36만(358,953) 명이 교회를 떠났다. 2021년 예장(통합) 교단 통계 위원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예장통합 전체 교인은 239만 2,919명이었다.¹⁰ 이 숫자는 2010년 교인 수에서 약 46만 명이 감소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교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285만 2,311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5만 명, 2020년 239만 명 2,919명으로 10년 동안 약 4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성도가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노마드 교인(Nomad Christian)’¹¹, ‘디지

⁶ 「한국기독교공보」, 2021. 3. 27, 10.

⁷ Ibid.

⁸ 「국민일보」, 2021. 4. 16, 31.

⁹ Ibid.

¹⁰ 「한국성결신문」. 2021. 10. 10. 1.

¹¹ ‘Nomad Christian’이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리저리 유목민처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교인을 말한다.

털 노마드 크리스천(Digital Nomad Christian)¹² 등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사역지 부족과 또한 목회현장에 대한 실망감으로 교회사역을 그만두는 ‘가나안 목사’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인들을 양육하며 돌보며 복음 전도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회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도들과의 만남과 예배, 그리고 돌봄 사역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그룹(Small Group)’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에 대하여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주로 ‘구역조직(Block system)’이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구역’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역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침체의 길로 걸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구역조직’을 대신하며 성경적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목회적 대안으로 ‘목장공동체’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장공동체’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교회에서 셀 모임, 소그룹, 목장 등 교회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리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³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는 전통 개념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주장하였다. 호켄다이크는 “새로운 사회의 개방된 선교를 위한 교회의 형태는 대성당이 아니라 공중전화박스과 같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예배실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기서 평신도의 선교적 위치와 그 활동의 지평이 더

¹² ‘Digital Nomad Christian’이란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Youtube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시청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¹³ 한국교회는 1980년대 급속한 성장 가운데 ‘성장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성도들의 질적 성숙과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셀(Cell), 순모임(旬), 목장’ 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구역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은 예수의 제자공동체처럼 12명 안팎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넓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들의 활용과 상호협동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평신도가 활발하게 선교의 주체가 되는 흠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흠어지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흠어지는 교회를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교회가 필요하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흠어진 교회가 되어서 그 흠어진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목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공동체로의 삶으로 전환과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초기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Covid 19’은 분명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동안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흠어지는 교회’, 즉 ‘목장교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Paradigm Shift)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목장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목장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방법은 성경 및 서적과 연구논문, 간행물, 그리고 레너드 스위트(Lenoard Sweet)박사의 강의와 조병호 박사와 김영래 교수의 저서와 강의, 그리고 연구자의 목회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연구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자가 목

¹⁴ J.C Hendrik,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흠어지는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92.

¹⁵ Ibid, 142.

회하고 있는 청주서남교회의 마을공동체 사역과 목장공동체사역을 통하여 교회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 탐구방법으로 청주서남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사용할 것이다.

상술하자면 I 장 서론에서는 언급한대로 청주서남교회는 1955년 11월 20일 1대 박종렬 목사에 의해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언더우드 목사의 설교로 17명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였다. 지난 65년간 2대 박중철 목사, 3대 이진옥 목사, 4대 김원영 목사에 이어 연구자가 5대 담임목사로 2017년 10월 1일 부임하였다. 그런데 목회 2년 후 2019년 12월 Covid 19' 판데믹(Pandemic)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지와 그에 따른 대안으로 목장교회를 연구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문의 연구방법과 그 대상과 범위는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로 한다.

II 장에서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며 그 회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살펴 보면서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음을 고찰할 것이다.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성육신적 교회였고, 선교적 교회였고, '가정교회' 였다. 그 초기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연구자가 주목하는 '목장공동체' 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목장교회' 라는 성경적 근거와 확신 아래 성육신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식탁공동체를 연구할 것이다. 교회공동체의 의미와 식탁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경의 시대별로 에덴 식탁공동체, 광야 식탁공동체, 가나안 식탁공동체, 예수 식탁공동체, 천국 식탁공동체의 유형을 살펴

볼 것이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덴 식탁에서부터 예수의 식탁으로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식탁으로 초대받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식탁공동체’와 ‘목장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IV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교회와 공동체, 식탁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가 시무하는 청주서남교회의 목회적 환경과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왜 목장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필요성과 유익이 무엇인지, 실제로 교회공동체 안에 목장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행정과, 목장사역의 실재를 기술한 후 목장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V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본 연구가 지닌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더불어 앞으로 연구자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목장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II. 교회의 위기와 회복

오늘 교회의 고민은 세상과의 ‘거리 좁히기’이다. 사람들은 점차 ‘교회와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온도차이가 클수록 선교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같음’을 느끼기보다는 ‘다름’을 느끼는 ‘괴리감’ 때문이다. 적어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들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고양된 의식과 행위를 드러낸다는지 영적으로는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우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이 깨어져 버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혐오’ 하든지 아니면 적대시하는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감으로¹⁶ 인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게토화(ghetto) 된다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게토화(ghetto) 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다.

¹⁶ 괴리(乖離, ghetto)는 서로 등져 떨어진 상태 ‘게토(ghetto)’라고 한다. 게토(ghetto)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어떤 특정 집단만이 거주하는 구역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게토(ghetto)화 되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중세기에 유럽에서 설치한 유대인 강제 거주지역, 나치 독일이 만든 유대인 강제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나 서안지구도 게토에 속한다.

A. 교회의 위기

1. 교회의 본질

교회의 어원은 헬라어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 라고 한다.

‘ἐκκλησία(ecclesia)’ 는 전치사 ‘ἐκ(from)’ 와 동사 ‘καλέω(caleo)’ 의 합성어로 ‘ek+caleo(~로부터 부름받다)’ 의

명사형이 ‘ἐκκλησία(ecclesia)’ 이다. 그 의미는 “~로부터 불러 나온 사람들” 혹은 “~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 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 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ἐκκλησία(ecclesia, 에클레시아)’ 라고 부른 것이다.

복음(εὐαγγέλιον, good news)을 헬라어로 ‘εὐαγγέλιον(유앙겔리온)’ 이라고 한다. ‘εὐαγγέλιον(유앙겔리온)’ 이란 ‘듣는 자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는 의미이다.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이 존재함 없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지 어느 누구도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¹⁷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의 삶’ 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른 믿음의 형

¹⁷ Robert Bankst,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역, 『비율의공동체 사상』 (서울: IVP, 2007), 62.

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ἐκκλησία(ecclesia, 에클레시아)’는 바울서신에만 60여 회 등장한다.¹⁸ 물론 이 용어 자체는 주전 5세기 이전부터 그리스에서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시민집회’ 즉 ‘민회’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므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민주주의 꽃이었다. 이러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상시 기관이 아닌 모임 그 자체였다. 집회의 종류는 ‘에클레시아’와 ‘에클레시아 퀴리아’로 나누어졌으며, ‘에클레시아 퀴리아’는 중요한 의제를 -국방, 정치 지도자의 감찰이나 탄핵, 식량 공급문제, 재산압수- 다루었고 사회의 중요한 재판의 결과를 발표했다.¹⁹ 고대 그리스인들은 1년을 10개의 프리타니(Prytany)로 나누고, 각각의 프리타니마다 한 번의 에클레시아 퀴리아와 세 번의 에클레시아를 열었다. 40회의 정기집회 외에도 ‘형클레토이 에클레시아’라는 긴급하게 소집된 집회도 있었다.²⁰ 이 에클레시아에 모인 시민의 수는 유일한 자료는 필로폰네소스 전쟁(B.C431~404) 중에 한 번 집회할 때 5,000명이 모였다는 타키투스의 언급이 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주로 아테네의 프닉스 언덕에서 열렸다. 그래서 “프닉스 언덕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 집회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무너지면서 그리스 민주정치 전통은 붕괴됐고, 한때 영예스러운 단어였던 ‘에클레시아’가 서민들의 사적 모임에 사용되는 ‘값싼 단어’가 되었다.²¹ 그래서 1세기 교회를 연구한 박영호 박사는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1세기에 다양한 소그룹에 쓰였다는 주장은 역사

¹⁸ Ibid.

¹⁹ 박영호, 「에클레시아:에클레시아에 담긴 시민공동체의 유산과 바울의 비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4.

²⁰ Ibid, 45.

²¹ 박영호,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서울: IVP, 2021), 10.

적 근거가 없다고 논증했다.²² 왜냐하면, 주후 1세기에도 에클레시아는 수천 혹은 수만의 자유민들이 모여서, 폴리스의 향배를 논하는 시민집회를 뜻하는 위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³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칠십인역(LXX)’인데²⁴ 이 ‘칠십인역(LXX)’에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를 사용하였다.²⁵ 그리고 간혹 ‘συναγωγή(synagogē, 시나고개)’도 사용되었다. 70인 역에는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가 ‘100회’ 가량 사용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물론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상의 모임을 의미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란 단어는 사도바울이 사역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최소한 헬라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사도바울은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란 단어를 그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살전1:1).

²² 박영호, 「에클레시아」, 12.

²³ Ibid.

²⁴ 70인역 성경(LXX)은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헬라어) 구약 성경을 말한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본국에서 초청은 72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에 70인역 성경의 권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과정에서 70인역의 번역과정이 예언자 모세가 야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과정에 유비되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72명이 번역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70인역이라는 말로 불리게 된다. 70인역의 대본은 마소라와 다른 제2의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실제로 마소라 본문과 70인역 본문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때문에 마소라 본문 비평가들에게 70인역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헬레니즘 시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디아스포라 유대인) 2, 3세들은 더이상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모국어인 헬라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였다. 이런 필요 때문에 히브리 성경 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다. 70인역 성경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없는 헬라어로만 기록된 성경들이 포함되어 있다.

²⁵ Bankst, *Paul's Idea of Community*, 63.

²⁶ Ibid, 65.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ἐκκλησία)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살전1:1)

바울은 그 편지에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란 단어를 헬라인이나 유대인 사회에서 쓰는 식으로 사용했지만, 편지의 수신자인 ‘회중’을 데살로니가의 다른 모임들의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구별하였다.²⁷ 사도바울은 그 도시의 다른 모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란 말을 첨가함으로써 정기적인 정치 회합과 구별하고 있다. 또한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를 첨가함으로써 매주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과도(συναγωγή, synagogē) 구별한다.²⁸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집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이 더 있었다. 먼저 헬라어 ‘οἶκος(oikos, 오이코스)’가 있다. ‘οἶκος(오이코스)’는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집(house)이라는 뜻과 그 집 안에 거주하는 가정(home), 가족을(family) 의미한다(행16:31). 그런데 ‘οἶκος(오이코스)’는 때로는 확장된 가족으로 모든 친척 이웃, 친교 집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οἶκος(오이코스)’는 단순히 ‘집’, ‘거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더 넓게는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며,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필로논(Philo) οἶκος(오이코스)’를 ‘아버지의 집’,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우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집의 건축자이자 창

²⁷ Ibid,66.

²⁸ Ibid.

조자로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으로 여겼다. 따라서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집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²⁹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따로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oikos) 또는 동굴이나 지하 무덤에서 소그룹으로 ‘집(oikos)’에서 모였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oikos(오이코스)’를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당’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συναγωγή(synagōgē, 시나고게)’가 있다. ‘회당’이란 말은 ‘집회 장소’, ‘모이는 장소’를 뜻한다. 회당은 ‘예배의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בית תפילה(베트테필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포로생활’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바벨론 후손들을 교육한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성인 10명만 모이면 어느 곳이나

‘회당(συναγωγή, synagōgē)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토라를 가르쳤다. 6살에는 모세오경과 수학, 10살에는 미쉬나, 15살에는 가마라를 배웠다. 회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방은(בית כנסת, Bethacneset) 기도와 설교와 예배 그리고 또 다른 방은(Bethamidrash) 신앙과 훈련에 관한 질의응답과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은 회당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동참할 수 있었으며, 흩어진 유대인들과(Diaspora) 여성들도 회당의 예배와 교육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야훼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회당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곱 촛대(Menorah)가 놓여 있었고, 성전제사의 여러 가지 제의적 행위가 회당의 예배로 대체되었다. 회당은 유

²⁹ <https://www.bing.com/search=오이코스>

대인들의 기도처인 동시에 교육기관과 회합의 장소였으며, 때로는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묶을 수 있는 숙소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찾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회당중심의 선교’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당’ 의 모습과 기능은 초기교회나 오늘 교회의 모습과도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교회는 ‘교회’ 를 의미하는 단어로 ‘회당’ 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회당’ 이 ‘건물’ 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회당’ 혹은 ‘건물’ 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사도들이나 교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신들의 공동체’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 이나 ‘건물’ 을 의미하는 ‘오이코스(οἶκος, oikos)’ 나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synagogē)’ 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cclesia)’ 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바울과 초기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명칭으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cclesia)’ 를 선택한 것은 ‘집’ 이나 ‘가정’ 그리고 ‘건물’ 을 터부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초기교회가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cclesia)’ 를 선택한 이유는 건물이나 조직보다 ‘모임’ 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큰 집이나 작은 집, 궁터나 강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는 교인들의 ‘모임’ 이 바로 교회였다. 초기성도들은 교회는(ἐκκλησία) 단순히 ‘집’ 이나 ‘가정’ , ‘건물’ 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임을 드러 내기를 원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주로 ‘가정

(οἶκος)’에서 모였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오이코스(οἶκος, oikos)’ 나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synagogē)’가 아닌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cclesia)’를 사용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사적인 모임(private gathering)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public gathering)이었다.

그러면 초기교회는 왜 그렇게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 곧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친교, 교제, 사귄’을 뜻하는 헬라어로 한 장소 또는 역사적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 - 같은 공간과 시간에 사람들의 그룹 - 을 의미한다.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의 또 다른 정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조직된 관계를 발전시켜온 오랜 협력 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둘째로 예수³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나누는 친교를 의미한다. 교회(ἐκκλησία)의 본질은 ‘교제(κοινωνία)’에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명칭을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敎)’자를 써서 ‘기독교(基督教)’, ‘불교(佛敎)’, ‘유교(儒敎)’라고 표기하지만 ‘교회’는 ‘사귄 交’자를 써서 ‘교회(交會)’라고 표기하는 것이 ‘교회(ἐκκλησία)’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그리

³⁰ וַיְהוֹדוּ (예수아) 여호수아 1:1을 히브리어 마소라(MT) 본문과 칠십인역 LXX 본문을 비교하면 :רמק? הַשָּׁמַיְמָ לְיְהוָה וַיְהוֹדוּ לְאֵלֹהֵי הַיָּם וַיְהוֹדוּ לְיְהוָה וַיְהוֹדוּ לְיְהוָה וַיְהוֹדוּ לְיְהוָה (MT) Καὶ ἐγένετο μετὰ τὴν τελευτὴν Μωϋσῆ εἶπεν κύριος τῷ Ἰησοῖ (Ἰησοῦς) υἱῷ Ναυη τῷ ὑποοργῶ Μωϋσῆ λέγων. (LXX) 히브리어 성경의 “예호수아” וַיְהוֹדוּ가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이에수스” Ἰησοῦς라고 번역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각각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스”가 된다, Jesus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예수”라고 번역이 되었고 한문으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에서 “예수”라는 말을 “야소” 耶穌라고 번역하면서 생긴 영향이다. וַיְהוֹדוּ(예수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람어이면서 동시에 현대 히브리어이다.

스도인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ecclesia)’는 ‘교회(教會, 가르치는 모임)’ 아니라 ‘교회(交會, κοινοβία, 교제)’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시에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교통’은 ‘교제(koinonia)’이다. 참된 ‘교제(koinonia)’는 오직 ‘성도간의 모임’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성도들이 상호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모였을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곳이다.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다음으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 참된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른 질서 속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다워진다. 프란시스 웨퍼는 이렇게 말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한다. 성삼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본보기다.³¹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 사랑과 대화와 우정 속에 살아야 한다.³²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教會, ἐκκλησία)의 주인이시

³¹ Francis A. Schaeffer, *True Spirituality* 권혁봉역, 『진정한 영적 생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19.

³²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1:10)

고, 교회(交會, κ ο ι ν ω ν ι α, 교제)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1:23)고 말씀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³³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신앙고백을³⁴ 하는 성도들 위에 세워지며 그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³⁵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주인은 절대 다른 어떤 힘이나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공동체는 우리를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며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은 ‘사귄(κ ο ι ν ω ν ι α)’ 과 ‘선교(Mission)’ 이다,³⁶ 하나님께서 ‘선교’ 하기 위하여 ‘교회공동체’ 를 세우신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그 ‘선교’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사귄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성도들과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귄이 있어야 함께 사역할 수 있다.³⁷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샬롬(shalom), 곧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 넓혀 가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 남, 너, 노, 소, 권력자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공동체의 소망과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 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³³ 이성희, 「디지털목회리더십」(서울: 규장, 2000), 205.

³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16:16)

³⁵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³⁶ 박영호, 「다시 만나는 교회」, 34.

³⁷ Ibid., 14.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겪는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갈등과 회피, 혼란과 실망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힘겨운 모험을 평생동안 각오해야 한다.³⁸

교회공동체는 단순한 ‘모임(ἐκκκλησία)’ 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즉 성도의 삶의 서로 이야기하는 ‘교제(κοινωνία)’ 를 포함한다.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κοινωνία) 를 누리는데 있다. 이런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씀과 믿음, 그리고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초기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믿음으로 연결된 삶을 살았다. 공동체성을 잃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³⁹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사귄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공동체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3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는 단지

³⁸ Larry Crabb,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김영희 역,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서울: IVP, 2013), 11.

³⁹ 이평강, 「셀리더 순장 목자 도움서」 (서울: 두란노, 2019), 9.

소유로만 존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지만, 그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주님의 승천 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 그들 모두 각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파라클레토스, Holy Spirit)’이 임하자 약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고, 서로를 돌보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었다. 이런 사랑의 교제와 나눔은 오늘날의 교회와 큰 차이가 있다.⁴⁰ 초기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공동체는 단순 예배를 위한 집단으로 전략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사교를 위한 단체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예배시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저 자동차 기어에 기름을 뿌리는 것 정도일 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교제를 위한 아무런 효과도 없다. 혹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상호 작용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⁴¹ 그러나 진정한 교회공동체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영적 교제를 통해 위로와 지지와 격려와 상호의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쁨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동체에 이르는 길, 즉 영혼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이다.⁴² 그것은 우리 모두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교회가(教會, 交會) 모임(ἐκκλησία)과 교제(κοινωνία)라는 본질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이하고

⁴⁰ J. Henrich Arnold, *Discipleship*, 원충연 역, 「공동체 제자도」 (서울: 홍성사, 2010), 111.

⁴¹ Crabb,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21.

⁴² *Ibid.*,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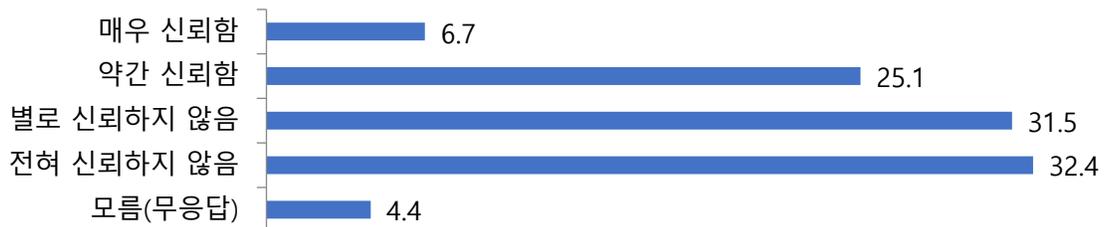
있다는 것이다.

2. 교회의 위기

2021년 2월 7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다.

< 표1 >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 신뢰도(단위:%)



구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0대	1.9	25.6	32	37.1
30대	5.1	17.1	37.6	35.8
40대	1.4	20.1	28.6	46.1
50대	7.5	25.7	33.3	32.9
60대이상	14.9	34	14.7	14.7

구분	긍정	부정
기독교인	75.5	24.4
타종교인	29.6	64.8
무종교인	17.2	78.2

기독교인·타종교인·무종교인 한국교회 신뢰도
(단위: %)

<자료:기윤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 는 질문에 ‘신뢰한다’ 라는 답변은 31.8%, ‘매우 신뢰한다’ 가 6.7%, ‘약간 신뢰한다’ 가 25.1%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가 63.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와 ‘약간 신뢰한다’ 가 각각 32.4%와 31.5%였다. 목회자의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가 68.0%로 ‘신뢰한다’ (30%)를 크게 웃돌았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톨릭(30%), 불교(26%), 기독교(18%) 순으로 답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투명한 재정사용(25.9%) 교회 지도자들의 삶(22.8%), 타 종교에 대한 태도(19.9%), 교회 성장제일주의(8.55)가 뒤를 이었다.⁴³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22.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활동적인 영역의 40대 그룹으로부터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이유는 목회자들의 개인적 욕심과 탈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비윤리적 삶, 투명하지 못한 재정사용과 교회 운영 등의 원인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개혁교회(Reformed Church)를 이루고 있다. 개혁된 교회(Reformed Church)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always reforming church)’ 일 때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saint Augutine)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고 주장하였다.⁴⁴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도퀴스 판 로텐슈타인

⁴³ 「국민일보」, 2021. 2. 10. 31.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⁴⁴ Steve Perisho: "Semper reformanda," at <http://spu.libguides.com/DCL2017/Reformation#s-1g-boxwrapper-18675181>, 인용: (August Bauer in 1898); J. N. Mouthaan, "Besprekingsartikel: Ecclesia semper reformanda: modern of premodern?,"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38, no. 1 (2014): 88 (86-89)]

(Jodocus van Lodenstein)도 시온의 묵상(*Contemplation of Zion*, Amsterdam, 1674-1678)에서 “진리... 또한 교회도 항상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였다.⁴⁵ 그리고 교회는 개혁된 상태(*reformata*)로만 있어는 안되고 항상 개혁될 것을 말한다.⁴⁶ 현대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Karl Barth)와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ns Quing)도 이 표어를 강조하였다.⁴⁷ 그러므로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그 개혁하려는 그 동력을 상실한다면 그 결과는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멸시와 비난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개혁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갖게 되는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곧 교회의 영적,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으로 연결된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뜻이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의미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곧 교회공동체가 사회와 ‘게토(Getto)’화 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성을 드러내야 함을 말한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교회의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은 교회가 건강한 것과 정비례하는 것이다.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공동체의 건강이란 교인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

⁴⁵ Theodor Mahlmann: "Ecclesia semper reformanda". Eine historische Aufarbeitung. Neue Bearbeitung, in: Torbjörn Johansson, Robert Kolb, Johann Anselm Steiger (Hrsg.): *Hermeneutica Sacra. Studien zur Auslegung der Heiligen Schrift im 16. und 17. Jahrhundert*, Berlin - New York 2010, 382-441 and 384-388

⁴⁶ *Ibid.*, 387.

⁴⁷ *Ibid.*

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도 교회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전도와 선교를 꾸준히 행하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이란 교인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 중에도 병든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교인 수가 적은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⁴⁸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미국 개혁주의 목회자이자 워싱턴에 있는 캐피털 힐 침례교회의 담임하는 마크 테버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을 유형별로 5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첫째, 목사의 설교가 교회 건강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의 첫 번째는 공통으로 말씀의 바른 선포라 했다.⁴⁹

둘째,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과 복음과 회심과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날 것이다. 성경적인 신관과 복음관과 회심관과 전도관에 대한 이해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성경의 여러 교리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리들이 우선적으로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인의 자격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다. 어느 단체나 단체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게 부합하는 사람만을 회원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 하나는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교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의 교인 수의 증가가 부흥이라는 잘못된 도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⁴⁸ Denver Mark,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이용중 역,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7), 9.

⁴⁹ Ibid., 10.

넷째, 신자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양육하는 교회이다.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⁵⁰ 건강한 교회는 단지 교인 수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 수가 많은 병원 같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다.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마치 유치원 아이 같거나 전투에서 패한 군인의 모습이라면 결코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자 훈련과 양육은 받은 건강한 성도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이것이 부흥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교회 위기의 극복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이며 그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극복의 핵심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신앙의 개인주의, 파편주의, 맘모니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교권주의, 배타주의, 교회의 사유화, 목회자의 일탈 등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아니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더군다나 ‘COVID 19’ 이 가져온 판데믹(Pandemic) 상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모습은 많은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⁵⁰ Ibid.

되었다.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첫째, 교회됨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교회됨이란 교회의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됨과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됨을 말한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教會, ἐκκλησία, 모임)’로 ‘교회(交會, κοινωνία, 교제)’가 되게 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모임)’ 됨과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교제)’ 됨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으면 가나안 성도들이⁵¹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공공성의 부재’는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 시켰으며, 사회로부터도 냉담과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⁵² 특히 은밀히 행해지는 ‘목회자 세습’은 교회의 공공성(公共性)을 파괴하고, 교회를 사유화(私有化)하는 반교회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는 부정적인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목회승계’나 ‘목회 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세습’이라는 부끄러움을 언어의 유희로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자신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개

⁵¹ 교회의 신뢰도 하락에 따라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교회 밖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성도를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출석하기를 거부한다. 당연히 예배도 헌신도 사역도 없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만 약 300만~5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⁵² 차정식,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서울: 짓다, 2015), 15.

인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목회자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십 년 목회하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행20:28)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승계’ 나 ‘목회 대물림’ 을 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공적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교인들이 ‘세습’ 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세습을 조장하는 목사 개인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교회의 결정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돌이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는 문을 닫은 채 자신들의 결정만이 지고지선(地高地仙)인 것처럼 옹호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저들을 선교에 초청하지 않겠다는 반복음적 행태이다. 교회는 어느 개인의 사업체가 절대 아니다. 공적인 교회를 단지 담임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물려 주는 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비성경적 행위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고백한다.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 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공공성(公共性)’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교회의 공공성은 개혁교회의 유산이자 자랑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교회의 어떤 직분 자의 소유가 아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성(Catholic)’ 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Catholic)이란 바로 교회의 공공성(公共性)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공교회(Public Church)’ 는 어떤 경우에도 사유화할 수 없는 공

적 유기체(有機體)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행20:28).⁵³

또한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일탈과 독선, 당회를 중심으로 한 왜곡된 리더십과 의사소통 구조의 폐쇄성,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 교회 문화의 세속화, 신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신앙적 실천 부족,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 간의 양극화 현상 등은⁵⁴ 오늘 교회가 교회의 사활을 걸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뼈아픈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마치 악성종양과 같아서 모른 채하거나 어설프게 품을 때 온몸이 악성종양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발견하는 즉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개혁교회로서 그 공공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공동체가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는 없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녹아야 하지만 어느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염려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비난은 교회와의 거리 두기로 변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e)’가 ‘교회 거리 두기(Church Distance)’가 되고 있다. 이 모두 교회가 ‘공교회성(Public Church)’을 망각한 결과이다.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더불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대화와 소통의 창구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감당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개인 구원(Individual Salvation)’과 ‘사회적 책임(Social

⁵³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행20:28)

⁵⁴ Ibid., 16.

Responsibility)’이라는 통전적 신학의 관점에서⁵⁵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품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한국은 미국 켄터키주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곳 중 5곳이나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 강국이기도 하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내적 모습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것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3위를 기록할 만큼 처참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단의 난립과 무인가 신학교와 과도한 목회자 배출, 그리고 성장 일변도의 교회사역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한국교회에의 일치와 연합은 실종된지 오래고, 수많은 연합기관이 난립함으로 오히려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의 각 교단의 교단장 및 주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넷째,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인들 신앙은 다분히 개인주의적이며 파편적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의 궁극성(Ultimacy)’ 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은 이 땅 위에서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⁵⁵ 장로회신학대학교 김명룡 명예교수는 2014년 발표한 논문에서 기존의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이라는 이름을 ‘온전한 신학’을 의미하는 ‘Ohn Theology’를 주창하였다. 온전한 신학이란 ‘온 세상 사람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온 세상을 위한 신학’이란 뜻이다. 온전한 신학은 ‘개인 구원(Individual Salvation)’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동시에 온전하게 수행하는 성경적이고 균형적인 신학이다.

⁵⁶ Michael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gement*, 최형근 역, 「성육신적 교회」(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2.

내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각 개인을 부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⁵⁷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족공동체였다. 그 가족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담이나 하와 각 개인도 중요하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공동체에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다. 개인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으며 공동체는 각 개인을 무시하지 않고 한 지체로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여 공생애 사역 기간에 제자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제자 개개인의 신앙적 양육과 동시에 제자공동체를 훈련시키셨다. 이 예수의 제자공동체는 초기 예루살렘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개인적 신앙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신앙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교회’가 아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배자로 서지만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찬성례전(Communion)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신앙행위’이다.

‘Community(공동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mmunio’라는 동사에서 왔으며, ‘Communio’의 어원은 ‘Communis(보통의, 평범한)’이다. 성찬성례전(Communion)은 ‘함

⁵⁷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계와 연합(With + Union)'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체(Community)' 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다. '성만찬(Communion)' 은 '개인이 타인과 연합한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찬성례전은(Communion)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다음으로는 함께 성찬을 받는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개인적으로 행해지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신앙고백 위에 공동체가 함께 행하는 주님이 정해주신 특별하신 '예전(Liturgy)' 이다.⁵⁸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성찬 성례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단순히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전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달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성찬 성례 전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모임(ἐκκλησία)' 과 '교제(κοινωνία)' 가 하나 되는 사건이다. 성찬성례전(Communion) '자기중심주의' 에서 '타인 중심주의' 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중심주의' 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그 '틀(Frame)' 을 벗어나 '공동체의 참여' 로 초청하게 된다. 그러한 초청 행위가 바로 전도요, 선교이다. 성찬성례전(Communion)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개인적 사건' 인 동시에 '공동체적 사건' 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과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했지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지 않았다. 개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⁵⁸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주님은 두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 방식' 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침투 또는 상호 내주(περιχωρησις, Perichoresis)'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목상하는 ‘개인 경건(Quiet Time)’ 을 절대적인 것처럼 홍보하며, 각종 ‘Q.T 자료집’ 을 앞다투어 발간하면서 뒤로는 수익 경쟁구조를 벌여왔다. 결과는 매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점 상실되어 갔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발견하는 초기교회 성도들은 개인주의를 넘어섰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령을 받았으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친교 하며, 함께 선교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위기는 이러한 초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역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이 받은 은혜를 목원들과 서로 나누는 ‘공동체 방식에서의 전환’ 을 이루어야 한다. .

다섯째,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건강성’ 을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야 한다. 싱싱한 사과 옆에 썩은 사과를 놓으면 썩은 사과가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싱싱한 사과가 썩게 되듯이 그리스도인 각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COVID-19’ 이후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교회임이 드러났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⁵⁹ 교회의 책임있는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중 하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등 교회의 직분자를 비성경적, 비상식적으로 세우는 데 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라고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공동체를 섬기며 동역할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⁶⁰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⁵⁹ Ibid., 11.

⁶⁰ Ibid.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타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 를 이루어 내는 공동체이다. 켈 햄필은 그의 책 <건강한 교회의 여덟 가지 특징들>에서 건강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 둘째,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셋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넷째, 목회 지도력이 확고한 교회, 다섯째, 영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진 교회, 여섯째, 하나님 이 주신 비전이 뚜렷한 교회, 일곱째, 복음 전도적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여덟째, 성도들을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교회

바울 사도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딤후 3:17, 엡 4:12) 하는 교회라고 가르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자(使者)’ 인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온전한 성도’ 로 세워지게 되며 온전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 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엡4:12).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듯이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개개인들이 유기적인 연합과 일치 를 이루어 그 기능을 아름답게 발휘하는 교회(고전 12:12-31)이다. 사도 베드로는 ‘만인 제사장(벧전 2:9)’ 으로서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 로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자기의 피로 값 주고 사셨다.⁶¹ 우리는 ‘COVID-19’ 이후 건강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피해를 주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지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에

⁶¹ 행20:28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건강을 돌보는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한다.

B.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의 드라마’이며 ‘구속의 드라마’이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상실한 에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새하늘과 새땅으로 회복된다.⁶² 회복이란 히브리어 단어 ‘슈브(שוב)’는 ‘돌아가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⁶³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깊은 회개를 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됨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왕의 자리란 것이 얼마나 헛된 영광의 자리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51:12~13)

⁶² 김인식, 「성경, 빅 픽처를 보라」(서울: 두란노, 2021), 9.

⁶³ 렘3:12, 14, 22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즐거움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맞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51:9).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구10)’ 한다.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마3:2, 마4:17)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그 응답을 통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스테반이나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과 구원을 받는 것” (행2:21; 행2:38; 행16:31)이었으며,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이며 회복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3:19)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핍박이 발생하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 지

역인 안디옥에 유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교회공동체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안디옥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회 안의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바울 및 바나바와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해주었고, 이를 들은 사도들이 크게 기뻐하였다(행15:1~3). 그리고 사도들의 회의를 통하여 유대와 실라를 보내(행15:27) 네 가지 문제만 주의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 네 가지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와 실라는 분열된 안디옥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켰다(행15:32).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복의 메시지였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빌2:5)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야요, 구원자임을 믿고 이 땅에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에게서 돌이키라는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 헌금, 직분, 영적 시험 등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됨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회복의 편지’였다. 그렇다면 오늘 대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는 다시 어떤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까?

1. 성육신적 교회로의 회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창

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하여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창1:27). 미국의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자유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한다. 니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자기를 초월할 줄 아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으로 해석한다.⁶⁴ 그리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동시에 의존성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사람의 유한성과 의존성이 바로 사람이 지닌 이중성이라는 것이다. 유한성과 의존성은 사람이 곧 피조물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유로운 피조물’, 즉 자유로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가 자유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죄(Sin)’이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며,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니버는 사람을 ‘자유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규정한다.⁶⁵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적 교회’의 저자인 호주 몰링 신학교 부총장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성육신(Incarnation)’을 설명하기 위해 ‘탈육신(excarnation)’을 말한다.⁶⁶ 현대인의 삶의 특성이 바로 ‘탈육신(excarnation)’이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주장한다.⁶⁷ 오늘날 탈육신이란 ‘근육 제거’ 또는 ‘군더더기 살 제거’라는 의

⁶⁴ Reinhold Niebuhr, *Man's Nature and his Communities*, 오희천 역,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들」(서울: 중문회사, 2016), 7.

⁶⁵ Ibid.

⁶⁶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gement*, 14.

⁶⁷ Ibid., 16.

학용어로 사용된다. 탈육신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후기 신석기시대(late British Neolithic period)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풍습이며, 보통 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중세 유럽에서 손으로 살을 벗기는 것은 일반적인 의례였다. 중세 유럽 인들은 타국에서 죽은 군주와 군대 장군들의 몸에서 살을 벗겨 뼈들을 먼 곳에서부터 고국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본래 탈육신은 게르만 풍습으로 라틴어로 ‘모스 튜토니쿠스(*mos Teutonicus*)’ , 문자적인 의미로는 ‘독일 관습을 의미한다’ 로 불렸고, 이 풍습이 기독교 세계(Christendom) 전역에서 왕과 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숭배하는 성물숭배로 발전했다.⁶⁸ 이러한 탈육신은 죽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이었고, 탈육신 후에 남은 장기는 동물들의 먹이가 되도록 놓아 둠으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관계를 수용한 것이다. 또 전쟁에서 전사한 자들의 시신을 위생적으로 운반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애도를 표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죽은 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했으며, 살아있는 자들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신성한 행위이자 의식들이었다.⁶⁹ 결국, 인간의 삶 속에 죽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삶에 대한 무의식적 습관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살을 벗겨 내는 것은 그들에게 예우와 존중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자들의 살을 벗겨 내는 것은 파괴요, 폭력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탈육신적’ 문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와 삶이 괴리되어 머리에만 머문 신앙으로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원화된 모습에 다시 말해 ‘비성육신화’ 하는 풍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관념화된 신앙’ , ‘관념화된 기독교’ 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

⁶⁸ Ibid., 17.

⁶⁹ Ibid., 18.

주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피상적 세계에서 유량하고 있는 것을 탈육신의 문화로 설명한다. 그래서 탈육신의 문화는 영혼과 내세만 중시하고 육체와 세상을 은연중 무시하는 이분법으로 드러난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보물찾기’ 식으로 끝내 버리는 일부 단기 선교의 형태나, 예배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문자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나 유튜브(Youtube)에서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모습은 결국 ‘탈육신적 신앙양태’ 라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로 ‘인공지능(AI)’ 과 ‘사물인터넷’ 이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기계’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 폰(Smart Phone)’ 은 이제 단순 전화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은행,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삶의 전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가 농업혁명에 5,000년, 산업혁명에 200년, 컴퓨터 디지털 혁명에 30년이 걸렸지만, 스마트 혁명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80% 이상이 스마트 폰을 소유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스마트 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호모스마트포니쿠스(Homo Smartphonicus) 시대이다.⁷⁰ 자기 전에 스마트 폰을 보고 자고,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스마트 폰을 집어 든다. 이러한 시대는 결국 ‘가상의 세계’ 와 ‘현실 세계’ 에 대한 착란이나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부딪쳐서

⁷⁰ 호모스마트포니쿠스(Homo Smartphonicus)와 동일한 의미로 휴대폰을 뜻하는 ‘Phono’ 와 생각, 지성을 뜻하는 ‘Sapiens’ 의 합성어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란 ‘생각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를 빗댄 말로, ‘스마트 폰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세대’ 를 뜻한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고, 빠른 정보전달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등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통해 점차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듯이 휴대전화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의 스마트 폰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정신적, 영적 피해, 나아가 육신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육신에 붙어 있는 살을 제거하고 있는 탈육신적 사회에서 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탈육신적 특성은 서구 기독교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삶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을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신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구현되는 ‘성육신적 역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육신(Incarnation),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다.⁷¹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成肉身)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교회는 성육신적 삶의 방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Incarnation)이 아니라 탈육신(excarnation)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삶이 표류하고 있다. 오늘 교회의 선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뿌리 박힌 이원론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이원론을 극복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일과 놀이와 정치와 사업, 예술, 공동체 봉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를 수반해야 한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⁷².

그러므로 성육신적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안

⁷¹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gement*, 27.

⁷² David Bosch, *The road to Missional* (Grand Rapids: Baker, 2022), 24.

에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임재하는 선교를 말한다.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David Bosch)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설명되지 않은 행동들로 대체될 수 없다” 라고 하였다.⁷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약2:26)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함한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동의나 인식의 전환을 넘어 우리의 몸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란 탈육신의 방식이 아닌 성육신의 방식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성육신 선교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1) 공동체를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이들과 정기적인 ‘식탁공동체’를 나누라.
- (2) 이웃과 협력하라. 이웃과의 협력을 반복함으로 마을공동체의 한 대에 의존하라.
- (3)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4) 평화의 사람들을 확인하고 연대하라. 평화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려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장막(Tent Maker)’을 함께 만들며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
- (5) 공동체의 사회적 리듬에 참여하라. 교회가 지역 공동체가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역 공동체에 교회를 맡기라는 것이다.

⁷³ David Bosch, *A Reader's Guide to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NY: Orbis, 2005), 105.

- (6) 병든 자를 치유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다양한 중독 및 파괴적인 양식들이나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해야 한다.
- (7)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선포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⁷⁴

2.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

성육신은(Incarnation)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이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혹독한 현실의 문제에 천착(穿鑿)하고 삶의 고민과 갈등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들 안에 머무는 성육신적 선교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교적 교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알란 록스버그는(Alan Roxburgh)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외부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부과한다. 외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 내부와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던 교회 활동의 초점을 교회가 위치한 지역공동체들로 재전향하는 것”을 의미한다.⁷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gathering)이다. 그러나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데 있다(scattering).⁷⁶

교회는 선교를 향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 박사

⁷⁴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gement*, 291-292.

⁷⁵ Alan Roxburgh, “Practices of Christian Life Forming and Performing a Culture,” *Journal of Missional Practice* 1 (2012). <http://themissionalnetwork.com/index.php-life-and-performing-a-culture>

⁷⁶ Edward H. Hammett and Loren Mead, *Gathered and Scattered: Equipping Believers for the 21st Century* (Macon, G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inc, 2005).

는(Leonard Sweet) “하나님은 행동(Motion), 운동(Movement), 선교(Mission)의 하나님이다”⁷⁷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 대부분은 ‘가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레너드 스윗은(Leonard Sweet) “우리는 더 이상 선교여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 전체가 선교여행이 되는 선교의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⁷⁸ 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Leonard Sweet) “그리스도인들은 본래부터 길의 사람들이었으며, 언제나 길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기독교를 일컬은 최초의 표현은 바로 길(The Way)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 그들은 ‘길의 사람들(People of the way)’이라고 불렸다. 순례자들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며,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멈추고 ‘주를 향한 길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⁷⁹ 누구나 길을 떠나는 것, 길 가운데서 지내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길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⁸⁰

선교적(Missional)이란 단어는 대럴 구더(Darrel L. Gudder)가 쓴 「Missional Church」⁸¹가 출판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크게 유행하였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상황의 변화된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Missional’이란 단어는 ‘Mission에’ -al’을 덧붙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목적, 특성, 그리고 활동을 규정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명시한다는 의미이다.⁸²

⁷⁷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Colorado Spring: David C. Cook, 2009), 55.

⁷⁸ Ibid., 60.

⁷⁹ Ibid., 71.

⁸⁰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서울: 통독원, 2010), 40.

⁸¹ Darrel L. Gud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⁸² Darrel L. Gud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인천: 주안 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1), 18.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1990년대 중반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 참여한 조지 헨스버거(George Hunsberg)를 중심으로 한 여섯 명에 의하여 시작된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이들의 공동작업은 북대서양 지역에서 기독교 세계의 종말에 관한 레슬레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중대한 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선교의 교회들(Missionary Churches)”이 되도록 도전하는 것이었다.⁸³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은 북미에서 출발한 자성(自省)의 신학이다. 교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보배는 질그릇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질그릇이 전적으로 보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보배도 아니고 보배를 만들 수 없음도 망각하고 오히려 그 보배를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맞춰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기독교 세계는(Christendom) 계몽주의(enlightenment), 모더니티(Modernity),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보배를 담았던 질그릇은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CN)’는 그것에 대해 자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분의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없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이고, 교회는 그 결과물이다. 그분의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⁸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CN)’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참여의 신학을 깊이 반영한다.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선교는 보내심(Sending)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통찰을 받아들인 결과로 얻은 것이다.⁸⁵ 그 동안 전통적인 선교 이해는 선교를 교회 사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였

⁸³ Ibid., 17.

⁸⁴ Ibid., 22.

⁸⁵ Craig Van Gelder.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다. 선교를 교회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 중심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중심적 선교 이해는 하나님 중심적 선교에 장애를 가져왔다. 선교적 교회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나 사역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로 이해한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다. 선교가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관점에서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이다.⁸⁶ 선교는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의 결과이다. 선교는 ‘보내심’을 의미하며, 그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로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목적들을 묘사한다.⁸⁷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s Bosch)는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의 고전적 교리는 또 다른 ‘운동’을 포함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내용으로 확장된다”고 말한다.⁸⁸ “선교”는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모인 회중들과 비교하여 “선교 단체들”의 활동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들 자신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명예교수인 김영동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 받은 나그네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실천을 함과 아울러 교회 자신이 항상 변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선교적 교회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본질이 이해되고 조정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다.⁸⁹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6.

⁸⁶ 최방은, “선교적 교회론에 따른 지역교회의 선교 방향 연구,”(목회신학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77.

⁸⁷ Gudder, *Missional Church*, 4

⁸⁸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90.

⁸⁹ 김영동, “개혁교회의 리더십”, 고재길 편집, 「개혁교회의 목회리더십과 16세기 신학교육-제9,19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129-130.

이러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4가지 주제가 있다.

- 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곧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 ②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나라)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교회의 선교보다 더 크게 만든다.
- ③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국가 이후(Post Christendom)에 포스트 모던(Postmodern)하고 세계화(Globalized)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육신적 사역(an incarnational ministry)-끌어들이는 사역(an altractional ministry)과 반대되는-이다.
- ④ 선교적 교회의 내적 삶은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여긴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충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제자로 양육돼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성장은 일차적 관심이 된다.⁹⁰

복음의 본질은 어떤 외부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 또한 그 교회의 본질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선교(Mission)’이다. 그동안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 하나라고 여겨졌다. 즉,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예배, 기독교 교육, 선교, 봉사, 친교) 하나가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사역이 바로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다시말해 교회의 도구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⁹⁰ Gudder, *Missional Church*, 28.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 이후(Post Covid 19)’,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19)’, ‘코로나 뒤에(Beyond Covid 19)’ 시대라 할 지라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COVID-19’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등 실제적 장애물 역할을 하므로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매우 사려 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摸索)해야 한다. 그것은 ‘COVID-19’ 이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일상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심리적 변화와 행동방식은 변하였지만,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런 선교적 교회론을 발전시킨 단계를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선교학적 일치(missiological Consensus)’ 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선교학적 일치(missiological Consensus)’ 를 이해해야 한다.⁹¹

- ① 교회와 선교들(Missions)과 선교(Mission): 우리는 교회론과 선교학을 연결으로써 교회와 선교들과 선교의 역사적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 ② 삼위일체론적 선교학: 우리는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 곧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미시오 데이(Missio Dei):⁹²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의 선교개념이 출현함으로써 교회 중심적 관점에서 신 중심적 관점, 특히 뉴비긴에 의해 분명하게 설명된 관점으로 재구성된다. 뉴비긴이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교학적 일치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⁹³ 곧 ‘하나님의 선교’ 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선교는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

⁹¹ Ibid., 32.

⁹² 미시오 데이(Missio Dei)는 고대 교회에서 삼위일체교리를 표현하는 말 곧 신적 자기 파송,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르트는 1932년 브란덴부르크 선교대회(Brandenburg Mission Conference)에서 한이말은 *Clasis Texts in Mission and World Christianity*, ed, Norman E, Thomas(Maryknoll, NY; Orbis Books, 1995), 106에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원자료는 Karl Marth, *Theologische Fragen und Antworten* (Zolikon: Evangelischer Verlag, 1957), 104-5, 1214-15.

⁹³ 미시오 데이(Missio Dei)라는 말은 독일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처음 사용했다. 그가 칼 바르트의 가르침을 요약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단어이다.

의 목적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이다.

- ④ 하나님의 통치(나라): 예수의 메시지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⑤ 교회의 선교적 본질: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를 수반한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 ⑥ 선교적 해석학: 하나님의 선교에 담긴 온전한 의도를 이해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선교적 해석학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⁹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일차적으로 ‘교회의 선교’로 이해하는 관점을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다는 관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교의 일차적 동인(agency) 인간의 반응을 일으키는 좀 더 큰 틀, 곧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로 바뀌었다.⁹⁵ 교회는 더 이상 선교에 관한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결과로 이해되었다. 나아가 선교신학은 더 이상 교회론(교회의 선교를 강조)이나, 기록(대 위임령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강조), 또는 둘 중의 어느 하나에 의지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선교 신학은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⁹⁶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이나’의 문제가 ‘교회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대화는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교회에 관한 대안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⁹⁷

⁹⁴ Ibid., 10-11.

⁹⁵ Hammett and Mead, *Gathered and Scattered*, 36.

⁹⁶ Gelder and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66.

⁹⁷ Ibid., 37.

교회의 목적/ 선교에 초점을 둔 운동	교회의 정체성/ 본질에 초점을 둔 운동
① 교회갱신 운동(1960년대, 1970년대) ② 교회 성장운동(1970년대, 1980년대) ③ 교회 건강 운동(1990년대, 2000년대) ④ 신흥교회운동(1990년대, 2000년대)	① 선교적 교회에 관한대화(1990년대, 2000년대) ② 신흥교회 운동(1990년대, 2000년대)

선교에 대한 교회의 이해는 20세기에 들어 온전히 신 중심으로 새롭게 변하게 되었다.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선교는 천지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근간을 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mission)’는 ‘보내심(Sending)’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 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르심과 권세를 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지속된다.⁹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하나님의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라고 주장한다.⁹⁹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지향하며 계속되고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목적이나 목표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도구이며 증거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대럴 구더(Darrell, L. Guder)는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말한다.

① 교회론은 성경적이다.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증언이며 그

⁹⁸ Guder, *Missional Church*, 30.

⁹⁹ Ibid., 31.

분의 선교에 모두가 증인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② 선교적 교회론은 역사적이다. 특정한 문화를 위해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할 때 반드시 다른 교회론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보다 선행하였던 문화와 동시대의 모든 문화 가운데 존재하는 기독교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다.
- ③ 선교적 교회론은 현장적(Contextualization)이다. 참된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서 성육신하는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화 가운데서 해석되고 성령 충만한 말씀에 응답하며 조직돼야 한다. 모든 교회론적 기능은 그들의 현장에 적합해야 한다.
- ④ 선교적 교회론은 종말적이다. 새로운 성경의 통찰은 교회와 교회의 신학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역사의 도전들은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갖게 하고, 새로운 문화적 현장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소망할지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 ⑤ 선교적 교회론은 실천적으로 될 수 있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실천이다. 모든 신학의 기본적인 기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는 교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한다.¹⁰⁰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되어야 하며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¹⁰¹ 선교는 교회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바로 ‘선교’ 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교가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한 선교의 도구이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선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온전한 선교는 복음 전도(Individual Salvation)와

¹⁰⁰ Guder, 「선교적 교회」, 38-40.

¹⁰¹ Christopher J. H Wright, *Mission of God*, 정옥배, 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4), 74-74.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전적 선교’ (Holistic Mission)이다.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란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을 말한다.¹⁰²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명예교수인 한국일은 통전적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다.¹⁰³

통전적 선교는 통전적 신학에 기초한다. 통전적 신학이란 부분들의 총화가 아니라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한 전체성을 의미한다. 통전성 안에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전성은 이 차이들을 무시하여 억지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차이로 인한 양극 단화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긴장을 잃지 않는 관계에서 상대를 보완함으로써 함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 한국일은 통전적 선교를 ‘에큐메니칼 선교’ 의 ‘선포’ 와 ‘현존’ 의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더 존스톤 같은 복음주의 학자는 선교란 오직 ‘전도’ 외에 다른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일은 ‘복음 전도’ 와 ‘사회참여’ 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전도와 정치, 사회적 책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⁴ 에큐메니칼 선교는 선교의 두 차원,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에 대하여 복음주의 선교보다 분명한 통전성을 제시한다. 전도와 사회참여(Evangelism and Social action) 두 차원이 모두 선교의 본질에 속한 것이며 우선순위는 고정적이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유연성을 담고 있다.¹⁰⁵

김영동 교수 역시 한국일 교수와 그 통전적 선교에 대하여 그 맥락을 같이 한다.¹⁰⁶ 통전적인 선교는 선교의 목표로서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봉사를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구원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통전적 선교란 ‘복음 전도(Individual Salvation)’ 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을 양 날개로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면서 그 교회가 처한 교회의 지역 상황에 바른 신학적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¹⁰² 김형일, “선교적 교회론의 도시 지역사회 적용 방안,” (목회신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66.

¹⁰³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16.

¹⁰⁴ Ibid., 39.

¹⁰⁵ Ibid., 41.

¹⁰⁶ 김영동, “선교적 교회론 연구,” 「세계선교」 제21호 (2003), 30.

선교적 교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초기교회의 모델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개혁교회의 핵심 모토rk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s reformanta semper ist reformanda)” 이다. 개혁이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전 교회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¹⁰⁷ 근원으로 돌아가는 ‘개혁’ 이 바로 ‘회복’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사회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N,Richard Niebuhr)의 말은 적절하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¹⁰⁸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초기교회에서 재발견하는, 회복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기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장공동체 세우기 사역은 매우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목장교회로의 회복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우선순위(Priority)의 첫 번째는 ‘건강성’ 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교회는 세상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더불어 존재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¹⁰⁷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9.

¹⁰⁸ Philp Yancey, *What 's So Amazing About Grace*, 윤중식 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서울: IVP, 1999), 14.

대화와 소통의 창구이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 구원 (Individual Salvation)’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사명을 통전적 관점에서 함께 품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기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초기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기교회는 핍박과 함께 인근 지방지역으로 몸을 피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모임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공개적인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의 집(oikos, oikos)에서 모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오이코스(oikos, oikos)’라고 하지 않고, ‘에클레시아(ekklesia, ecclesia)’라고 하였다. L. 마이클 화이트에 의하면 초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개인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¹⁰⁹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집’은 집 그 이상으로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ekklesia, ecclesia)’였다. 그러한 ‘모임’과 ‘교제’가 증가하여 모임의 장소가 비좁아 지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 집을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최근 발굴한 기독교 건물은 3세기 중반의 가정교회로서 종교기능을 전담하도록 변경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후 모든 가사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정집을 수리하여 더 많은 예배자를 수용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¹¹⁰ 초기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예배하였으며, 흠어지면 전도하는 단순한 생활양식이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포함된’ 단순함이었다. 그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코이

¹⁰⁹ Stark, 「기독교의 발흥, 25.

¹¹⁰ Ibid.

노니아) 나누었고, 함께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끼리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섬김을(디아코니아) 실천하는 교회였다.

초기교회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목회자 중심의 예배, 즉 설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수의 회중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초기교회의 예배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 되며 ‘모임’과 ‘교제’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을 담아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목장교회’이다. 목장교회는 앞서 논한 ‘성육신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기초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목장교회(공동체)가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사역하기 위해서 초기교회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첫째, 예수를 회복(Re-Jesus)해야 한다.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유럽의 교회나 북미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종교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세속주의, 맘모니즘 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성경을 회복(Re-Bible)해야 한다. 성경의 회복이란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읽기’이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그리고 통(通)으로 전 교인이 함께 읽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임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유대인의 성경’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기도를 회복(Re-Prayer)해야 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러한 성령체험은 초기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부르짖는 ‘통성기도’와 ‘새벽기도’ 등이 세계교회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묵상기도(Meditation)’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Meditation)’를 균형적 영성(Spirituality)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증언을 회복(Re-Witness)해야 한다. 초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증언하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다.¹¹¹ 증언을 헬라어로 ‘μάρτυς(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다. 바로 ‘증언’과 ‘순교자’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순교자적 담대함과 믿음과 헌신이 요구된다. 증거가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인은 곧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회복은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곧 증언공동체,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복음의 열정(Re-Passion)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열정(Passion)은 곧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사역하지 말고, 성령 없이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해 봤자, 성령의 임재 없이 땅끝까지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오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

¹¹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님(Holy Spirit)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열정적인 영적 리더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른바 ‘대형교회’ 또는 ‘소형교회’로 교회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도 요한에 의한 교회의 구분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 인가로 분류될 뿐이다. 살아있는 교회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모임)’와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교제)’가 ‘하모니’를 이룬 교회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죽은 교회란 ‘영적으로 죽어서’ 교회의 모임과 교제를 잃어버린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리아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다. 이러한 예루살렘 초기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 바로 ‘목장공동체’, 곧 ‘목장교회’이다.

Ⅲ. 교회와 식탁공동체

A. 공동체

1. 교회공동체의 의미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다시 말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Society)’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은 사람과 ‘관계(Relationship)’를 맺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과 관계맺는 것은 아니다. 주로 자기 삶의 주변인들과 관계를 갖는다.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동호회 등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소위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여기서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1차적 관계는 가정이다. 가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1촌’의 관계로 의, 식, 주를 함께 하는 1차적 공동체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2:24)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은 흠뻑에서 하와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이 말씀은 공동체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

나눔은 아담을 창조하셨으며, 그 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다. 아담은 자신이 홀로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불만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러한 부부공동체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 관계는 부부요,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 부부 공동체는 노아의 가족공동체를 통해서 죄악 된 세상에서 힘을 합쳐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공동체로 확대되고 그 민족공동체는 국가공동체로 확대된다.

2차적 관계는 이웃이다. 이웃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공동의 이익과 선을 도모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음식을 나누거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3차적 관계는 동호회이다. 자전거, 테니스, 골프, 켈트 만들기, 독서 모임 등 서로의 공통된 취미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인위적으로 형성된 모임으로 이러한 ‘동질의 취미와 관심사’는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지며 이러한 관계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다.

4차적 관계는 회사나 개인 사업체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직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회사나 개인 사업체와 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직장(공무원, 군무원, 경찰, 소방, 군(軍), 경찰, 철도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이익이든 공적 이익이든 그 구성원 간에는 상호 협력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모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모인 특별한 조직이 있는데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혈연관계나 경제적 이익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지만, 가정과 같이 삶을 함께하며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매우 신비한 조직이요, 가정과 더불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조직이 따로 있고, 그 조직에 사람이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¹¹²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모임(ἐκκλησία)’과 ‘교제(κοινωνία)’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임’과 ‘교제’란 한 사람이 상을 전제로 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Incarnation)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 Lord)로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모임과 교제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특수한 부르심에 특별히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과 성(聖)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성도들과의 교제를 갖는 모임은 단순히 ‘집단’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도움과 나눔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敎會, 交會)’는 ‘모임으로서의 교회’와 ‘교제함으로의 교회’가 어우러지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믿음을 지켜 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것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타인없이 내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람이 관계적 존재인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상호 사랑의 인격적 관계’로 존재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상호침투 및 내주(περιχώρησις, Perichoreis) 하시며, 상호 사랑의 인격적 관계’로 존재 하시며, 자신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지은 사람과

¹¹² 박영호, 「다시 만나는 교회」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12.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며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갈4:19),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엡4:13)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영적 공동체(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성장은 결코 개개인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신앙의 개인주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¹¹³ 오늘 교회의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생략한 채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바빠서’, ‘상처받아서’, ‘어울리기 싫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신앙은 자신을 ‘영적 외톨이’나 ‘영적 은둔형 성도’로 고착시킬 뿐이다. 흔히 “내 믿음 내가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고 말씀하셨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었다. 그들은 개개인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 교회는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공동체’, 곧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곧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한다(행20:28).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초기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2. 식탁공동체의 의미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도 그 먹는 것의 종류와 방법이 다를 뿐 먹음을 통해 영양분

¹¹³ Crabb,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11.

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차려 놓은 한 끼의 밥상은 그 자체가 ‘위로’요, ‘격려’요, ‘사랑’이다. 그런데 식탁은 단지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그 음식에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녹아져 있다. 또 서로 음식을 권하며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드러낸다. 식탁은 비단 가족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식탁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 식탁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화평과 사랑과 배려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자리이다. 가족 간의 식탁의 자리도 이와 같다. 가족의 식탁은 서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가족 간의 화평을 선언하는 자리이다. 그 가족 공동체의 식사, 즉 동일한 음식을 함께 먹음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공동으로 자각(自覺)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식탁은 개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이다. 개인이 배고픔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배고픔을 해결할 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식탁은 음식을 통하여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식탁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짜증 난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등 수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간에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가족 간의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며 알게 된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의 식사는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며, 서로에 대한 격려와 지지와 조언과 축복을 담는 자리이다. 그 식탁 안에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이 녹아져 있다. 그러므로 식탁공동체는 삶의 축소판이다.

B. 성경의 식탁공동체

성경은 식탁공동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식탁공동체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베풀어준 식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에덴에서 추방된 후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는 사람의 식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 셋을 강권하여 영접하여 환대를 베푼 식탁, 그리고 애굽에서의 식탁, 가나안에서의 식탁으로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식탁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성만찬 식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성경에 나타난 식탁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의 식탁은 아담과 하와의 수고로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식탁이었다. 특별히 각 가정과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는 ‘식탁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식탁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나누는 신앙교육의 장(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식탁의 자리는 곧 신앙의 자리이다.

1. 에덴 식탁공동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6일의 마지막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 내셨다. 그것은 아

답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¹¹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향해 ‘투사’ 된 것이다. 아담은 자신에 대하여 혼자 있어서 ‘외롭다’ 라거나 ‘불편하거나’ ‘좋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순전히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투사’ 된 것이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여자’ 를 이끌어 낸다는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하여 두 사람 서로에게 선물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Imago Dei) 지으시고(창1:27) 복을 주셨다.¹¹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

창세기 기록 순서대로 보면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는 말씀이 두 번째로 나온다. 율리시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양식비평’ 을 사용하여 창세기 본문은 각기 야훼 문서(J), 엘로힘 문서(E), 신명기 문서(D), 제사장 문서(P) 전승에 따라 그 문서가

¹¹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2:18)

¹¹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편집된 것으로 주장하지만¹¹⁶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이론이 불완전하며, 구전에 관한 연구와 양식에 대한 분석과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¹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하우젠의 양식비평을 사용하면 창세기 2장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보다 창세기 3장의 ‘먹는 것’에 대한 명령이 앞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먼저 식(食)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이 틀림없다. 사람은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衣)와 주(住)의 문제는 에덴동산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생존하고 기동하기 위해서 먼저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의 문제’에 대한 명령이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창1:28)보다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였으며 그 가정은 최초의 ‘식탁공동체’가 되었다.

¹¹⁶ [https://blog.naver.com/벨하우젠\(Julius Wellhausen\)](https://blog.naver.com/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J 문서(Jahwist, 야훼문서) 보편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서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비평학자들은 J 문서의 저작연대를 왕정시대, 즉 주전 10세기 혹은 9세기로 보며, 이 책이 창세기 49:8-12등과 같은 그곳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P(Priest, 제사장 문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J 문서는 인간과 땅에 관심을 기울인다. J는 신인 동향론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J 문서는 남조 유다에서 어느 익명의 저자에 의해 B.C. 850년경에 쓰여졌다. 그는 개인의 전기에 특히 관심이 깊었으며 한 인물, 인물의 개성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또한, 그는 선지자처럼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에 관심을 가지나 제사나 의식에는 거의 흥미가 없다. E 문서(Elohim, 엘로힘 문서)는 J 문서보다 한 세기 정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되며, 북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후자의 견해는 북 왕국의 문제 및 요셉과 같은 북왕국적인 인물들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추론된 것이다. 신학에서 E 문서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사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E 문서는 이스라엘의 복조에서 무명의 저자에 의해 B.C. 750년에 쓰여졌다. 설화체에 있어서는 J 문서보다 좀 더 객관적이며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적으며 구체적인 것들에 더 집착하였다. 창세기에서 E 문서는 의식과 예배에 관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D 문서(Deuteronomic, 신명기 문서)는 고전적인 문서 비평학이 구분해 낸 세 번째 자료 층이며 오경 중에서 그 이름의 기원이 된 신명기에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신명기서의 핵심 부분은 요시야의 치세 중에 성전에서 발견된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D 문서는 요시야 왕이 B.C. 621년에 부흥을 일으킬 때 대제사장 힐기야의 지도를 따라 공식적인 개혁의 프로그램으로써 만들어졌다. 그 목적은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산당에 있는 그들의 지방 성소(신당)를 버리고 그들의 모든 제사와 종교적 현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도록 하는 데 있었다. P 문서는 아마 오경의 네 자료 층 중에서 가장 독특할 것이다.

¹¹⁷ Hermann Gunkel, *Die sagen Genesis*, 진규선 역, 「창세기 설화」(서울: 감은사, 2020), 16.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사람의 최초 식탁에 오른 것은 ‘나무의 열매’ 즉, ‘과일’이었다. 그것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이 바로 이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뱀 곧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였다(창3:1~5).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순간 먹고 싶은 유혹이 더 강렬했기 때문이다.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의 본성대로 따라 행한 결과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사람이 육신의 본성에 충실해지려는 순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그 선택한 자신에게 발휘한다. 그런 차원에서 육신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창3:5)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다. 결국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창3:6).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의 식탁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럽히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에덴동산에 차려준 하나님의 식탁은 기쁨과 감사가 아닌 불순종과 심판의 식탁이 되었다.

이처럼 사탄은 창세이후 사람들의 ‘식탁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의 말씀의 불순종의 장(場)으로 변질시키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어그러진 그 ‘식탁공동체’를 다시 창조의 질서 속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식탁공동체’를 제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식탁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¹¹⁸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22:17)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이다. 성경은 ‘먹는 것(eat freely)’에서 시작하여 마시는 것(drink freely)’으로 끝난다.¹¹⁹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값없이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가득한 영적 식탁을 제공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공동체로 참여를 촉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주님의 ‘식탁공동체’로 초청하시고 그 식탁에서 영적 메시지를 먹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육신을 위한 일용할

¹¹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21:6)

¹¹⁹ www.livesthestory.net.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아닌 영원한 영의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에덴 마을의 식탁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훼손된 식탁공동체를 예수 마을의 ‘십자가 식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천국 마을의 영원한 생수의 식탁으로 초대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다.

2. 광야 식탁공동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모든 민족’에 대한 큰 담론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¹²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12: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간의 언약이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레26:42)

이러한 개인의 언약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쌍방언약으로 전환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꿈꾸시며 그들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출애굽시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¹²⁰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서울: 통독원, 2014), 44.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수용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쌍방간의 합의를 통한 계약으로 완성되었다.¹²¹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19:8)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맺은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놀라운 언약이 아닐 수 없다.¹²²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잘 감당하겠다고 언약했던 제사장 나라는 다음과 같다.¹²³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어서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¹²¹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45.

¹²² Ibid, 45.

¹²³ Ibid., 47-48.

5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율법을 지키던, 5명이 100명과 맞서 싸워 이기고, 100명이 1만명과 맞서 싸워도 이기는 나라이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제사장은 법궤(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룩한 곳이었다. 때문에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아브라함은 식탁공동체를 구하게 여긴 대표적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마므레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자 그는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였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 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창18:3~5)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인식할 수 있었던 영의 사람이었으며,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환대(歡待)하였다. 발을 씻기고 빵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급히 잡아 요리하여

‘장막의 식탁’을 베풀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식탁공동체를 나누었다(창18:8).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식탁에 기꺼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식탁공동체는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사람이 영원히 거할 ‘천국 식탁공동체’를 예표 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식탁’을 통한 환대는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식탁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장’이요, 하나님은 그 식탁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함께 누리시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한 축복이 바로 아버지에게 드러지는 ‘식탁’을 통해서 결정되었다(창27장). 아버지 이삭에게 드러질 식탁은 야곱과 에서의 ‘축복의 쟁탈전’이 되었고,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어야 할 형제 간에 원수가 되는 고통의 식탁이 변질되었다.

이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과 그 가솔들 70명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였다.¹²⁴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430년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누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은

‘노예의 식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사모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의하여 땅의 식탁을 탐한 결과이다. 430년 동안 계속되는 노예생활에서 제공받

¹²⁴ 약 B.C 1886년경이다.

은 식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베푸시는 식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쓴 나물의 식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의 ‘노예 식탁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시키셨다.¹²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님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으며(창12:1-3),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창15:18). 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었다.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성하였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430년간 제국의 노예로서 맛보는 식탁은 쓴 나물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의 삶과 식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430년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주셨으며, 애굽이라는 제국 백성에서 다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전환을 시도하셨다.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권력 유지에 부담을 느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는 정책을 폈다. 그때 모세가 레위족속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난다.¹²⁶ 모세가 80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유월절 식탁’이었다. 그 식탁의 음식은 새해 첫 달 14일까지 일 년 된 수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간직했다가 각 가족대로 어린 양과 염소를 취하고, 우슬초로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였으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을 불사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다.

¹²⁵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노예 식탁’, 아픔과 눈물의 식탁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어 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¹²⁶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으로 추정하면 모세가 80세 되던 해 출애굽을 하였으므로 모세의 출생연도는 B.C.1524년경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고통의 시기를 의미하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으로 누룩 자체는 죄를 상징하며, 빵은 ‘순전함’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식탁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수단으로 삼으신다. 이 유월절의 식탁은 단지 육신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기억하는 곳이다. 또한 그 식탁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하셨다. 이러한 유월절의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식탁에서 주인의 식탁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의 식탁으로 만들어 버린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표시(Sign)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표시가 되었지만¹²⁷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문지방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어 ‘ π (헤트)’이다. 이 단어는 부활, 생명, 시작, 울타리, 지성, 분리, 구역이란 뜻이다.¹²⁸ 헤트는(π) 히브리어에서 매우 유명한 ‘생명’이라는 의미의

‘ π (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연계된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어린 양은 약 1500년 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

¹²⁷ 출12장

¹²⁸ ‘ π (헤트)’는 히브리어 8번째 글자로서 뜻은 ‘울타리, 생명’ 등이며 레쉬+바브=200+6=206으로 사람의 뼈가 206개인데 그 뼈가 사람의 육체를 보호하듯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시는 영원한 울타리이다.

스도를 예표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Passover, 유월절)를 입은 것처럼 갈보리 언덕 위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식탁’은 그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식탁이었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셨다(요6:53).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십자가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애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¹²⁹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닥친 어려움은 홍해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출애굽 이후 다가 온 두 번째 어려움은 물의 문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출 15:22). 마라에 이르렀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하여 먹을 수 있게 되었다(출15:25). 여기서 야훼께서 지시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삶에 던져지는 사람마다 고통과 쓴 물을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달고 시원한

¹²⁹ 출13:20-22

생수를 마시는 영원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지 둘째 달 십오일에 신광야 이르렀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이 모두 떨어지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되었다(출16장).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출17장).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기브룻 핫다아와에서 메추라기를 보내 먹여 주셨다(민12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식탁’ 이었다.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의 언약으로 새로운 갱신을 하신다.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 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칠십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공동체에 참여하였다(출24장).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며(출16장, 민12장),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다(출17장). 그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 굶주리거나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광야의 식탁 기간은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원년 2월 15일) 후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2,084주)’ 동안이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동안 광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을 쳤으며,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며,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¹³⁰

3. 가나안 식탁공동체

이 광야 40년은 레너드 스윗(Lenord Sweet) 박사의 주장대로 우리 인생을 상징(Sign)한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이 땅위에서의 삶은 제사장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향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나라로의 지향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과 율법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은 그 언약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민 14:24).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른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전쟁을 치루고 획득

¹³⁰ 수5:10-12

해야 하는 땅이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고통의 쓴맛을 보는 땅,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 일용할 육신의 식탁뿐 아니라 영적 식탁도 풍성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의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신1:5).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신1:8). 하나님이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로서 삶 가운데 ‘젓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된다고 당부한다.

조병호 박사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¹³¹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올 수 있게 된 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언약을 맺으셨다.¹³²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 보고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을 정리해 하는 모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들어 있었다.¹³³ 늘

¹³¹ 조병호, 「성경통독」(서울: 통독원, 2021), 128.

¹³² Ibid., 132.

¹³³ Ibid.

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신29:15)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그 옛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다.¹³⁴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26:9-1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은 그들만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 즉 제사장 나라를 세워 나가는 레위인들과 더불어 나누며 또한 그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 즉 이방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에게도 그 ‘젖과 꿀’을 나누는 식탁공

¹³⁴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서울: 통독원, 2020), 93.

동체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될 생명의 식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의 백성, 율법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과 율법을 지켜 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한다. 광야의 식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참여하는 식탁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식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여할 수 있는 식탁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스라엘 2세대가 모세의 당부를 잊고 토착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타협하였으며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원주민들로부터 농사법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섬겼던 농사의 신들을¹³⁵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350 여년간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탈을 당한다. 그 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나안 식탁’을 회복시켜 주셨다.

4. 예수 식탁공동체

예수의 생애는 ‘빵’으로 시작된다. 예수가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이다. 육신의 빵의 집에 참으로 빵 되신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이다.

¹³⁵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으로 바알은 남성, 아세라는 여성 신으로 그 두 신이 이방신전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사랑의 액이 나오는 것을 하늘의 비로 여겨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의 신전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빵)이니 사람이 이 떡(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6:51)

참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는 공생애 시작을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기도로 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음식을 끊는 것, 즉 빵을 능동적으로 끊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빵은 생존에 필수품이지만 때로는 하늘의 빵을 먹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의 빵조차도 능동적으로 거부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마치는 날 그 배고픔이 극한 상태에서 사탄은 예수를 유혹(Temptation)하였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여지없이 ‘빵’의 문제였다. “돌을 빵이 되게 하여 먹으라”(마4:3)는 유혹이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에게 빵 한 조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신8:3)

이러한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었다. 첫 번째 아담을 향한 시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라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에게 시험 역시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식탁의 유혹 앞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여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였다. 그 후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였다. 빵과 포도주가 풍성히 넘치는 자리에서 예수는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풍성히 채워 주셨다. 그리고 예수는 그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의 식탁을 베풀었다. 그 성만찬의 식탁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내어 주어 먹게 하신다.¹³⁶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은 ‘식탁의 사역’ 이요, 에덴에서 깨어진 식탁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다.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의 첫 이적을 보여 주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요2장) 자리이다. 이 혼인 잔치는 ‘정혼 기간’ 이 끝나고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에 벌어지는 잔치이다.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보통 수요일날 시작해서 화요일날 끝난다.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 혼인 잔치의 음식이 다 떨어졌을 무렵인 화요일에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 을 예수를 향해 걱정한다. 마리아는 혼인 잔치의 음식을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그 혼인 잔치가 마리아의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잔치에서 손님이 음식이 떨어짐을 걱정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잔치 참여는 혈육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식탁공동체의 자리가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¹³⁷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됨과 그 혼인 잔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다.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예수가 제공하는 포도주는 기쁨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정한 때에 신부

¹³⁶ Willimon, *Sunday Dinner*. 50.

¹³⁷ www.livesthestory.net “여기에 쓰인 항아리 여섯 개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 포도주 약 600병에 해당한다. 당시 혼인 잔치에는 평균적으로 포도주가 약 240병 정도 소모되었다. 혼인 잔치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0병을 만든 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함을 깨달아야 한다.”

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주님은 그 신부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드러 낸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표(Sign)한다. 이처럼 예수의 공생애 시작은 혼인잔치라는 식탁공동체 자리였다. 이 식탁은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베푸신 광야의 식탁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예수의 식탁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식탁공동체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예표(Sign)이다.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공통으로 기록된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 벳세다 언덕 위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벳세다 들판에서 천국 복음을 마쳤을 때는 모두 배고픈 시간이었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고 그 도시락을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었더니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되는 빵과 생선을 남기게 되었다. 성인만 오천 명이었으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그 벳세다 들녘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가족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식탁이요, 말구유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막6:39-40)

(Καὶ ἐπέταξεν αὐτοῖς ἀνακλιναὶ πάντας
συμπόσια συμπόσια ἐπὶ τῷ χλωρῷ χόρτῳ καὶ
ἀνέπεσαν πρασιαὶ πρασιαὶ κατὰ ἑκάτον καὶ
κατὰ πεντήκοντα)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συμπόσια(심포지아)’이다. 심포지아는 당시 여유 있는 잔치를 표현한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잔치의 자리에서 누

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세리들, 죄인으로 여겨졌던 여인, 병자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까지도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식탁은 어린아이의 육신의 빵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사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육신의 빵’이 되었든, ‘영의 빵’이 되었든, 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빵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³⁸ 그러므로 예수는 빵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식탁의 주인이요,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식탁은 유대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었다면 이방지역의¹³⁹ 들녘에서 칠병이어의 식탁을 베푸신 것은 이방인들도 당당히 주님의 식탁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특수성(Particularism)’으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보편성(Universalism)’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오병이어의 식탁과 칠병이어의 식탁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과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식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발견한다.

에덴의 식탁은 아담과 하와의 수고가 없는 하나님의 수고로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식탁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식탁이 아닌 사람의 수고를 통한 사람의 식탁이 준비 되었으며, 이 식탁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만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땅의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가게 되었으며, 결국 430년간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 430년 노예의 생활로 주어

¹³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6:4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6:51)

¹³⁹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32-39, 마가복음 8장 1-10절로 기록하고 있으며 장소는 갈리리 호수 동남 쪽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진 식탁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쓴나물의 식탁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으며,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되는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광야의 식탁은 에덴의 식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 즉 하나님께서 빵과 식탁의 주인임을 상기 시키는 자리였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식탁은 가나안에 정착과 더불어 그치게 되며 다시 땅의 식탁이 시작된다.

땅의 식탁을 통한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식탁을 회복시킨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풍성한 식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예수가 제공한 그 식탁의 자리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였다. 팀 체스터는 「예수님이 차려 주신 밥상」에서 로버트 캐리스의 말을 인용한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늘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즐기셨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제공할 천국 식탁공동체의 모형이었다.”

성경은 아침과 저녁의 일반적인 식사 자리로(ἄρτιστον, 눅11:38), 저녁 식사의 자리로(δειπνον, 눅14:17 ; 고전11:20), 혼인잔치의 식사 자리(γάμος, 눅12:36 ; 마22:10) 등 다양한 식탁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식탁공동체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식탁공동체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예수는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 한 식탁공동체의 자리에서 죄 많은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정죄를 거부하시고 많은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칭찬하신다(눅7:47).

식사의 자리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맛없는 삶의 자리가 아닌 풍성한 사랑의 자리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 바리새인이 청한 점심 식탁공동체의 자리에서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준엄하게 꾸짖는다(눅11:52). 식탁의 자리는 외식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 팔로 안아 주고, 씻겨 주고, 가락지를 끼워 주고,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아버지가 베푸는 식탁의 자리는 아들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생명의 식탁이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러한 식탁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늘어 놓는다. 여기서 주님은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탕자임을 밝히면서 두 아들 모두 회개하고 아버지가 베푸는 기쁨의 식탁공동체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식탁의 자리에서 시작되며, 특별한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 표현이 빠져 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제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부자와 나사로는 거의 동시에 죽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음주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 가운데 천국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자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 살면서 살았다. 부자 집에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살도록 두었다.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은 부자의 식탁에서 남은 빵을 주었다는 뜻이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눅16:27). 이 요청은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식탁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으니 나사로도 자신을 위해 물 한 방울을 자신의 혀 끝에 찍어 주도록 요청한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부자의 요청에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 즉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서 음부로, 그리고 음부에서 천국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한 생각을 한다. 그것은 아직 죽지 않은 자신들의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지금 물한방울 얻을 수 없는 음부의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타인을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에게는 형제가 다섯이 있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문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않았다. 자신의 식탁공동체에 거지 나사로는 빠져 있었다. 부자는 자신의 풍성한 식탁에 나사로를 초청하지도 않았다. 부자는 단지 율법적 의무만을 최소한으로 행했을 뿐이다.¹⁴⁰

공생애 후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식탁을 준비할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식탁은 예수의 제자들만 12명이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매우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식탁의 자리이기에 마르다가 예수

¹⁴⁰ www.livesthestory.net. 2022. 10. 26.

에게 동생 마리아에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와주도록 요청했지만, 예수는 마르다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눅10:42). 여기서 예수는 ‘땅의 식탁’ 과 ‘하늘의 식탁’ 가운데 ‘하늘의 식탁’ 이 우선순위를 선언하고 계신다.

예수는 공생애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탁공동체’ 로 초청하셨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가족인 제자들을 식탁으로 부르신 것이다. 예수는 이 식탁공동체를 통하여 이 제자들을 땅 위의 일시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성만찬의 식탁공동체’ 요, ‘성만찬의 신비’ 이다. 이러한 성만찬의 기원은 ‘키디쉬(Kiddush)’ 라는 식탁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다. 키디쉬는 (Kiddush) 유대인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이나 명절을 종교적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하여 함께 했던 식사를 말한다. 실제로 예수는 공생애 기간 모두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는 삶을 보여 주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은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여러 개의 잔을 사용한다. 반면에 키디쉬(Kiddush) 식탁은 어린 양도 잡지 않고, 누룩 있는 빵을 먹고, 단 하나의 잔 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으며, 매주 남자들만의 식사였다는 점에서 예수의 성만찬과 매우 큰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¹

성만찬의 기원이 ‘유월절’ 이든 아니면 ‘키디쉬(Kiddush)’ 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식탁으로 제자들과 오늘 모든 백성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성만찬의 식탁공동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그만큼 성만찬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증거이다(마16, 막14, 눅22, 요13).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¹⁴¹ <http://naver.me/5Y10vydp>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예수의 ‘성만찬 식탁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전11장). 사도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전 11:23~29) 라고 증언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 라는 것은 곧 ‘기억하라’ 라는 것이요, ‘기념하라’ 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뜻’ 이었다.

이러한 예수의 식탁공동체는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매우 인격적인 초대였다. 그 예수의 식탁 공동체의 초대를 수락하는 자들은 생명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며, 반면에 거절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의 식탁은 결코 육신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었다. 예수의 식탁은 더 중요한 ‘말씀의 식탁’, ‘영혼의 식탁’, ‘천국의 식탁’ 이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식탁은 육신을 위한 식탁공동체를 넘어 ‘영혼을 위한 식탁공동체’ 였으며, 이것이 궁극적인 식탁공동체의 목적이었다. 예수는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탁을 베풀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14:22~24)

예수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 를 먹고 마시게 하였으며, 그 빵은 자신의 몸이요, 그 포도주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고전11:23~29).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요,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뜻이었다.

이러한 예수의 최후의 식탁은 아브라함과의 첫 언약을 확증하며 이스라엘 공

동체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시내산 사건의 재현이다.¹⁴²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만찬을 통해 어떤 의미의 식탁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역사에 대해 부모와 랍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예수가 베푸는 최후의 식탁에서 제자들은 그 식탁이 언약을 또 한번 갱신하는 식탁으로 연상되었을 것이다.

과거 선조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일을 기념하고 기리는 기쁨이 가득한 연회, 감사의 제사, 거룩한 환대와 우정의 징표, 메시아가 여는 연회, 새로운 언약의 확정 등,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은 식사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들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의 식탁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¹⁴³ 최후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된다는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렘31:33)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의 생생한 징표가(Sign)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갱신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자신이 하늘로 온 생명의 떡임과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과 피는 참된 음료임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언하신다(요6:35;51;53~58).

¹⁴² Willimon, *Sunday Dinner*. 27.

¹⁴³ *Ibid.*, 28.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4-55)

주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 참여함을 선언하고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새로운 천국 식탁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심을 말씀하신다. 주님이 베푸신 마지막 식탁공동체의 자리는 ‘언약(תּוֹרַת, Covenant)의 피’와 ‘언약의 살’을 마시고 먹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 미국 듀크대 실천신학 교수는 “식사는 거룩한 일이며 음식을 먹는 자리야 말로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에 적절한 곳”¹⁴⁴ 이라며 성찬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다. 예수는 빵을 잘 먹고 포도주를 잘 마시는 건강한 인자였다.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였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마11:19; 눅7:34)

초기교회 성도들이 빵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이자 사명이었다. 교회 공동체의 집사(deacon)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영혼을 부르는 약’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성찬을 의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목회적 돌봄의

¹⁴⁴ 「국민일보」, 2021. 4. 9. 33.

행위' 로 여겼기 때문이다.¹⁴⁵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나온다. 그들은 예수
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절망하여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
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날이 저물어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은 그들과 저녁 식탁공동체를 가졌다.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 떼
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눅24:30~31)

주님은 저녁 식탁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눅24:35).¹⁴⁶ 이 두 제자
는 길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유숙하러 들어간 집에서 빵을 나눌 때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자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고 지금 자신들의 앞에서 빵을 나누어 주
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유대 가정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그 집의 가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다.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빵을 나누어
주신 것은 주님이 그 식탁공동체의 주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주님이 떡을 떼어
두 제자가 무엇을 보았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다.

예수는 그 식탁공동체로 이 땅의 백성들을 자신의 영원한 가족, 하나님 나라
의 가족으로 초대하셨다. 예수가 무리들에게 베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12

¹⁴⁵ Ibid.

¹⁴⁶ Ibid.

제자들에게 베푼 성만찬의 식탁은 그 본질은 모든 사람을 예수의 식탁, 생명의 식탁, 구원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행위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함께했고,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들의 식탁에 참여했으며,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였다. 사람들이 제공한 식탁은 일시적인 식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식탁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식탁을 함께 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그 예수의 식탁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푼 예수의 성만찬 식탁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가족 확장의 식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¹⁴⁷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천국의 식탁으로 초청하도록 명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의 식탁공동체를 확장해 가는 것이요, 이 땅의 일시적 가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였으며 그들은 자진들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위탁하신 식탁공동체를 이루었다(행2:42).¹⁴⁸ 그 식탁의 자리를 바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식탁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신비한 예수의 식탁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5. 천국 식탁공동체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밥상공동체, 식탁공동체라는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⁴⁹ 일시적인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¹⁴⁷ www.livesthestory.net. 2022. 10. 26.

¹⁴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떤 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2:42)

¹⁴⁹ 정용섭, 「설교와 선동사이에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01.

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3:11)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영원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원성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 이요, 신앙이다. 그러므로 영원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그 영원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 이요,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그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고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탁을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갈 때 천국의 영원한 식탁도 주어 짐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작고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빵’ 이다. 사람은 빵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분명하게 ‘일용할 빵’ 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개인의 양식은 한 가정공동체에서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빵 공동체’ 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식탁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빵

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알맞은 온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를 공쾌한 사르밧 여인의 빵과 기름을 해결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셨다(왕상17:16).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넬 여인을 통하여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빵을 공쾌 받았다. 이것은 수넬 여인이 빵을 누가 주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야훼 하나님 의식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천국 마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천국 마을의 주인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천국 마을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자녀들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존재한다. 그 기쁨은 순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때문이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식탁’, ‘영생의 식탁’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이미 가나의 혼인 잔치와(요2장) 갈릴리에서 ‘하늘의 빵과 음료’,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공동체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식탁 자리를 상기시키면서 세상의 잔치 자리, 세상의 식탁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영생의 식탁 자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세상에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슬퍼하거나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이기 때문이다(계19:9).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빵과 새로운 포도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공동체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공동체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식탁공동체로 부르신다. 예수는 잔치 자리, 또는 식탁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초기교회는 이 식탁의 모습을 식사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성도 간 교제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겼다(행2:46, 고전11:21, 갈2:12).

통성경연구원의 조병호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¹⁵⁰

- 첫째,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다.
-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이다.
-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이다.
-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으로 시작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소망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언약의 갱신’으로 확장되어지며, 이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3:17)

예수는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셨다. 그리고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신 성만찬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대전환을 선포하시고, 확정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

¹⁵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20-221.

신을 어린양의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린 바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결국,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 죽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식탁은 구원의 식탁, 사명의 식탁, 소망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초대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식탁이든지 영적 양식을 먹는 예배의 식탁이든지 결국 모든 식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식탁’에서 ‘하늘 식탁’을 바라 보는 것,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식탁이어야 한다. 모든 식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식탁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식탁공동체’의 자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식탁공동체’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다.

IV. 목장공동체 세우기

A. 청주서남교회의 상황

1. 목회환경

청주서남교회는 1955년 11월 20일 17명이 모여 청주시 서문동에 당시 서문동과 남주동 사이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청주서남교회’로 명명하였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초대 故 박종렬 목사였다. 이후 2대 박중철 목사 3대 이진옥 목사 4대 김원영 목사가 목회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5대 담임목사로 2017년 10월 1일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 이후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진단 결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성도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개혁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도 갖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교회는 20012년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나 문제는 교회 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발생으로¹⁵¹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교회의 재정은 채무이자만 겨우 납입하고, 교회의 현상유지를 하는데 급급한 상태였다. 그리고 리더십의 약화, 교역자와 직원들의 타성, 교회교육에 대한 시스템 부재, 사역시스템 부재, 장년 신앙교육과 양육에 프로그램 부재, 젊은 젊은층, 교인의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사역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목회 연착륙을 시

¹⁵¹ 채무는 약 74억 5천여만 원으로 매월 약 2400여만 원이 순수 이자로만 지출되고 있었다. 이 액수는 당시 성도들의 현금으로 버티어 내기 버거운 상황이었고, 교회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도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분들이 ‘연착륙’을 조언했지만 교회의 형편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신의 안위를 도모기보다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로 결단하고 실행하였다.¹⁵²

선교학자 톰 A. 스테픈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사역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고¹⁵³ 주장한다. 연구자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마칠까?”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다.

2. 목회계획과 비전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6가지 기술 즉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3D 프린트’가 중요한 테마이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 시대, 성 평등의 시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그리고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시대이다. 이렇게 엄청난 시대의 변화 환경 속에서 담임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비전을 제시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공동체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개인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속으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로완 윌리엄스 주교의 말처럼 “목회자의 사명

¹⁵²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我死 教會生, 我生 教會死)”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혁하기로 결단하였다.

¹⁵³ Tom A. Steffen, *Passing the Baton*, 김한성 역, 「타문화권 교회개혁」(서울:토기장이, 2011), 57.

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그 부름을 받은 사명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통해 사막 같은 인생의 길에서 오아시스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생명의 말씀을 적절하게 공급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일깨우며 말씀으로 거룩한 충동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회계획과 비전을 제시한다.

(1) 표 어(Subject): 회복!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행2:47)

- 가) 예배가 좋은 교회
- 나)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 다)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 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2) 사명선언문 (Declaration of Mission)

청주서남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쓰임 받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 예배, 예수 그리스도 → 제자, 성령 → 선교)

(3) 사명실천 (Practice of Mission)

- 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 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다케 (말씀과 양육)

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나눔)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일치)

(4) 목회신학

<p>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p>	<p>예. 잘. 성! 소. 공. 동! 하 모 니! 정면돌파!</p>	<p>방패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으로 예. 잘. 성 ● 은혜로 소. 공. 동 ● 사랑으로 하. 모. 니 ● 믿음으로 정면돌파 † 십자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침  4가지 사역을 통해 승리하는 교회
---------------------------------------	---	---	--

✓ Since 1955 - 창립년도
 ✓ C.S.C - Chungju Seonam Church

1) 복음으로 예. 잘. 성

가. 예수 잘 믿는 성도

나. 삶으로 예수를 말하는 성도

다. 3R 운동(Reformation, Recovery, Restart)

→ 전교인 통성경 연구과정 및 TEE 공동체 학습 참여(Reformation)

→ 새벽기도 300용사(Recovery)

→ 세.꿍.성 -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 7천명 운동(Restart)

2) 은혜로 소. 공. 동 [소통 → 공감 → 동참(동행, 동역)]

가. 소통

- ㄱ.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기도, 찬양, 말씀),
- ㄴ. 성도 간의 소통: 케리그마(목장 말씀 나눔), 교제(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봉사),

나. 공감

- ㄱ. 하나님과 공감 → 말씀, 기도, 찬양
- ㄴ. 성도들과 공감 → 중보기도, 교제, 돌봄과 섬김

다. 동역(동행, 동참)

- ㄱ. 복음 사역에 동행 →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1인 1사역 운동)
→ 제직회 부서의 능동적 사역 (사역부서의 은사 배치)
- ㄴ. 성도들의 삶에 동참 → 성도들의 삶에 동참(상담, 심방, 결혼, 장례 등)
- ㄷ. 소그룹 및 제자 양육 → TEE 공동체 학습, 은혜 노트, 목장교회

3) 사랑으로 하 모 니

- 가. 하나님과의 하모니
- 나. 성도와의 하모니
- 다. 이웃과의 하모니

4) 예수의 믿음으로 정면돌파!

- 가. 찬양의 기쁨 나. 기도의 능력 다. 말씀의 은혜 라. 순종의 축복
- 마. 헌신의 열매 바. 섬김의 행복 사. 개척의 영광 아. 영적 전투의 승리

이러한 목회계획에 따른 목회 비전(Ministry Vis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장공동체(교회)를 세우는 비전이다. 목장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은 목회의 최우선 목표이다. 개인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공동체 신앙으로 초기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며, 상호 인격적, 영적으로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초기교회를 회복하여, 진정한 교회공동체의 맛을 느끼게 하고, 목장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다.

둘째,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이다. 목사의 사명,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전도요 선교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다. 바른 복음을 선포함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미소 짓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된 예배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삼위 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나아갈 것이다.

셋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양육비전이다. TEE 공동체 학습으로 성도들의 양육을 지속적으로 도와 성장과 성숙의 여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넷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 및 노인세대를 돌보는 비전이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유아부터 청년세대까지는 몸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다.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경주하는 노년 세대를 돌봄과 섬김으로 노년의 생이 은혜로 풍요롭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경적 관점으로 제공함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비전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가 되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도 없으며, 분리되어 존재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

게 된다.

3. 교회개혁과 실천

연구자는 ‘살아남는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목회’에 초점을 두고 당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재정문제이다. 연구자는 교회의 과도한 부채 상황을 위해 2019년 11월 정책당회를 통해 <천사운동, Vision2025>를 시작하였다. 성도 한 사람당 한 구좌 (300만원), 총 1004구좌를 작성하고 기도하였다. 연구자도 10구좌를 헌신하였고, 당회원, 부교역자, 직원,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22억 5천만원을 상환함으로 교회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Covid 19’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2027년에는 교회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성도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둘째, 양육프로그램의 도입이다. TEE(T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공동체 학습을 도입하였으며, 신앙의 토대는 연구자가 직접 양육하여 10개기수 약 120명이 과정을 이수하여, 동역하고 있다. 또한 새가족을 위한 ‘정착 양육과정’을 운영중으로 2021년 새가족이 55명 등록하여 정착율이 9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TEE 과정은 부교역자들에 의해 ‘아기학교, 다니엘 제자학교, 요셉엄마랑 아기랑’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시설의 노후화 문제이다. 교회 주차장을 확장,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게스트 하우스, 키즈카페, 카페에제르 리모델링, 식당 리모델링, 새가족 식당 설치, 부교역자실 리모델링, 당회실 리모델링, 전도사실 리모델링, 당회장실 리모델링, 유치부 이전, 청년공동체 예배실 음향 및 화면 설치, 본당 화면 설치, 현수막

시스템 설치, 체육관 운동기구 설치 등 지속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교회의 환경을 성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넷째, 사역문제이다. 교회 조직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이기보다는 노회와 총회를 운영하는 공천방식으로 사역을 맡다 보니 많은 성도가 동역하기보다는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 교회는 노회나 총회와 그 본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회와 총회는 공동체도 아니고, 주님의 몸도 아니다. 그것은 개 교회를 돕기 위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영과 사역을 공천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조직을 ‘은사 사역 구조’로 전환하였다. 제직들의 사역을 당회의 ‘공천 방식’에서 제직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은사배치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은사대로 원하는 사역을 지원하여 해당 사역국의 담당 교역자와 담당 장로가 사역자를 배정하는 구조로 바꾸었다. 각 사역은 국별로 진행되며 국장은 시무장로가 맡도록 하였으며, 사역 지원자는 담당 국장과 부목사가 소통하여 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역 참여도와 헌신도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졌다

다섯째, 교역자 문제이다. 부임 시 부목사가 4명에서 현재 6명으로 늘었으며, 교육담당 목사와 전도사등 총 11명의 교역자가 사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력, 영성, 지성이 겸비된 부교역자를 청빙하여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 만족도를 높이고 사역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 부교역자의 복지문제도 관심을 기울여 부교역자 청빙 광고 시 좋은 교역자들이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선교의 문제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의 공적 책임 또는 공공성의 사명이기도 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Mission)’이기 때문이다. 참된 교회는 교회의 필요가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1) 게스트 하우스 개방 2) 지역주민과 주차장 공

유 3)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8대) 4) 하이랜드 키즈카페 설치(High Land Kids Cafe) 5) 스터디 카페(Study Cafe) 설치¹⁵⁴ 6) 에제르 카페(Ezer Cafe) 사역 7) DTC(Drive Through Church) 사역 8) 저소득 가정 생활용품 지원 사역 9) 성탄 트리 점등 사역 10) 군장병 위문사역 11)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주지원 사역 등 이웃과 함께 하는 사역들을 개발하고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교회를 향한 지역민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지역주민이 그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필요한 교회라는 반응과 인식이 일어날 때이다.

¹⁵⁴ 본 교회는 2022년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스터디 카페(Study Cafe)’를 2층에 리모델링하여 오픈할 계획이다.

< 표 2 > 청주서남교회 개혁과제 현황(2018-2022)

1) 2018		계	완료	진행(계속)	비고
		49	44	32	
번호	주요 내용				비고
■예배(Worship)					
1	●금요회복 기도회 시간변경(20:00→19:30)				완료
2	●솔로몬 성전 및 다윗성전 음향 컨설팅				진행
3	●생명나무 찬양집 발간				완료
■교육(Education)					
4	●하이랜드 키즈카페 설치				완료
5	●다세국 교역자실 리모델링				완료
6	●교회 컴퓨터 교체				완료
7	●교육관(유치부) 리모델링(도배, 장판, LED등 교체, 필립작업)				완료
8	●중등·고등 다비 청소년부 통합				진행
9	●청소년 다비실 의자 교체				진행
10	●청소년 다비실 암막 커튼 설치(예배 분위기 조성)				완료
■섬김(Service)					
11	●교회 일러스트, 예배상/액자/시계 신규제작				완료
12	●70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청춘국 설치				완료
13	●청춘국 효도 봄, 가을 소풍 실시				진행
■교회행정(Administration of church)					
14	●주차장 확장공사				완료
15	●꽃뜨래 오픈				완료
16	●식당 좌석 확장 및 환경개선(훈빠, LED교체)				완료
17	●스마트플랫 설치(3개소: 행정실, 솔로몬, 에제르)				완료
18	●교회 홍보 영상 제작				완료
19	●교회 홍보 브로셔 제작				완료
20	●채무이자 금리조정 인하노력(27억 0.35%, 연 1천만결약)				완료
21	●체육관 환경개선(도색)				완료
22	●주총무 번호인식 시스템 공사/주총무 배수구 정비				완료
■마을공동체사역(Village community)					
23	●마을공동체 사역으로 개편				완료
24	●목장사역 실시				진행
25	●분기별 마을별 예배 실시				진행
26	●마을공동체별 소풍 실시				진행
2) 2019		계	완료	진행(계속)	비고
		26	19	7	
번호	주요 내용				비고

■예배(Worship)		
1	●새벽기도회 통합(300용사)	완료/계속
2	●주일 1부 예배시간 변경(07:00→07:30)	완료/계속
3	●금요회복기도회 실시(40회)	완료/계속
4	●주보 새롭게 제작	완료
5	●온가족 새벽기도회(다운새 11회)시작	완료/계속
6	●반주자 초빙(1부,3부,수요 오르가니스트(3명))	완료
7	●5인 5색 가을 사경회 실시	완료/계속
8	●양드림 예배 실시	완료/계속
9	●전교인 문화예배 실시 (롯데시네마 ‘바울’ 600명)	완료/계속
■교육(Education)		
10	●통합 아동부 설치	완료/계속
11	●TEE 공동체 학습 실시(서남아카데미) (풍성한생명, 풍성한 빛, 잠언, 신앙의 토대, 은혜노트사역자 반)	완료/계속
12	●은혜노트 제작/ 활용	완료/계속
13	●새교우 양육 교재 제작	완료
14	●권찰회 변경→ 목장사역 전환	완료
■기독교 문화(Christian culture)		
15	●종교개혁주일 년중 계획 반영	완료/계속
16	●성탄트리 점등식	완료/계속
17	●송년음악회 실시(제1회)	완료/계속
18	●전교인 명찰제작 패용	완료/계속
19	●세,꿌,성 뱃지 제작 패용	완료/계속
20	●태극기, 교회기, 세꿌성기 게양식을 통한 게양	완료
■섬김(Service)		
21	●스타렉스 헌신/ 구입(2대)-교역자,장로회	완료
22	●결혼, 장례, 심방 사례금지	계속
23	●새교우 환영만찬 다과회로 변경	계속
24	●예배당 앞 웰컴사역(시무장로)	계속
25	●에제르 쿠폰발행	계속
26	●성탄절기간 에제르 연장 사역	완료/계속
27	●여전도회 바자회 실시	완료/계속
■교회행정(Administration of church)		
28	●새로운 교패 제작	완료
29	●솔로몬성전 강단 카페트 설치	완료
30	●솔로몬성전 셀라오키스트라 자리확장	완료
31	●버스노선변경	완료
32	●카페, 식당 섬기는 이 안내판 제작	완료
33	●헌금봉투 통합개선(십일조, 절기, 감사)	완료
34	●결혼/장례봉투제작 사용	완료
35	●청년부 찬양실→ 새교우실로	완료

36	●주총무 안내판 설치	완료
37	●체계적인 주차안내 정착(스티커 제작 부착)	완료/계속
38	●장례순서지, 조화문구변경, 안내표지 제작활용	완료/계속
39	●행정실 앞 간이 휴게실 설치	완료
40	●강단 꽃꽂이 화분으로 변경	완료/계속
41	●가정의 달 표창 제도 개선	완료
42	●홈페이지 개선/발전	완료/계속
43	●행정실내 교회 CCTV 모니터링 TV이동설치	완료
44	●교회홍보 브로셔 제작	완료/계속

■소.공.동(Communication, Sympathy, Participation)		
45	●전교인 여름수련회/교회에서 실시	완료/계속
46	●주보 목양칼럼에 성도 참여	완료/계속
47	●주일식사 아침식사 개선(빵으로 대체)	완료/계속
48	●서남 4대 캠페인 실시 1) 전교인 명찰 달기 2) 양 먹이기 3) 한 영혼 더하기 4) 음식물 제로화	완료/계속
49	●남선교회 소.공.동 실시(배구시합)	완료/계속

3) 2020	계	완 료	진 행(계속)	비 고
	24	21	12	
번호	주 요 내 용			비 고

■예배(Worship)		
1	●강단배경 변경(계절 및 절기에 따라)	완료/계속
2	●온라인 예배 환경 구축(카메라, 노트북, 마이크 등)	완료
3	●청주서남TV 유튜브 예배 채널 개설	완료

■교육(Education) 과 선교(Mission)		
4	●유치사비 스크린, TV(75인치)로 변경	완료
5	●유년, 초등요비실 스피커 교체(노후된 제품 교체)	완료
6	●DTC(Drive Through Church) 택시기사 선교	완료

■섬김(Service) 4가지 추진		
7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우 장터 개설	완료
8	●추수감사주일 과일나눔(독거 가정 등)	완료/계속
9	●사랑의 김장 나눔(독거 가정 등)	완료/계속
10	●야외 음향시설 구축	완료

■교회행정(Administration of church)		
11	●인터넷 요람 시스템 구축	완료
12	●모든 사역 계획의 문서화	완료/계속
13	●선교 후원 신청제도 구축	완료/계속
14	●부목사실 환경개선(시스템 에어컨, 창틀 교체 등)	완료
15	●행정실 환경개선(시스템 에어컨, 창틀 교체 등)	완료

■기독교 문화(Christian culture)		
-----------------------------------	--	--

16	●미스바에 공연 및 문화 공간용 데크 설치	완료		
17	●미스바에 파라솔 벤치 설치(총 8세트)	완료		
18	●대형 성탄트리 미스바 설치	진행		
19	●교회 배지 업그레이드	진행		
20	●교회 로고 업그레이드	진행		
■코로나 19 대비(Defence COVID -19)				
21	●방역 장비 구축(체온 측정 장비 등)	완료		
22	●매주 방역 실시(소독)	완료/계속		
23	●코로나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완료/계속		
24	●코로나 방역 일지 기록	완료/계속		
25	●코로나 대비 목회서신 발송(1차~14차)	완료/계속		
4) 2021	계	완료	진행(계속)	비고
	13	7	6	
번호	주요 내용			비고
■예배(Worship)				
1	●노후된 방송 장비 일부 교체(영상 장비 등)			완료/계속
2	●새벽행진 진행(시즌1-4)			완료/계속
3	●솔로몬성전 강단 맞은편 모니터 TV 교체(86인치)			완료
■교육(Education)				
4	●유아사비 스크린을 TV(75인치)로 교체			완료
5	●전교인 통성경 통독 진행			완료/계속
■섬김(Service)				
6	●Drive Through Church 사역(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완료/계속
7	●코로나 대비 예배 입장 시 KF94 마스크 교환			완료/계속
8	●수가의 생수 상시 비치(예배당 로비)			완료/계속
■시설관리(Facilities management)				
9	●벤엘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완료
10	●솔로몬 Chaple 방수 공사			완료
■기독교 문화(Christian culture)				
11	●교회 방패 로고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배부			완료
12	●교회 방패 로고 인쇄 고급마스크 제작, 배부			완료
■코로나 19 대비(Defence COVID -19) 1가지 추진				
13	●방역 장비 추가 구축(체온 측정 장비 등)			완료

2022년도 교회개혁 신규 사업

계	완료	진행(계속)	비고
10	3	7	
번호	주요내용		비고
1	●마을공동체 목장 소공동실 리모델링(벤엘3-5층)		진행
2	●게스트하우스 1실 리모델링 (11월 1일부 시행) - 1회 이용료 5만원(세탁비 등, 2박도 동일)		완료
3	●교회역사관 리모델링		진행
4	●유선 마이크를 무선으로 교체(솔로몬, 다윗, 다비)		완료
5	●다윗성전 음향 장비 교체, 강단 화면 설치		완료
6	●스튜디오 구축		진행
7	●수요예배 신설(오전 11시), 목장예배 오후 7:30)		3-5월까지 한시적 운영
8	●감사 저금통 헌금 시행(3월, 6월, 10월, 12월)		진행
9	●진데이(Jesus Empowerment All Nations) 시행(마을별 예배로 연결) - 젊은 교인, 가나안 교인 등 교회로 이끌어 내며, 중장년층과의 함께 드리는 공감예배		진행
10	●목요찬양예배(가칭) 신설(준비하여 3월부터 시행) - 13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 세대를 중점 타겟으로 예배 문화를 선도할 예배 신설		진행

B. 목장공동체

1. 목장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가 공동체'인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Trinity)은 한 본질, 세 위격(mia ousia, treis hypostases)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位格, hypostasis)이시되 본질(ousia)은 한분으로 이시다. 이러한 삼위일체¹⁵⁵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를 사용

¹⁵⁵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ώρησις)는 상호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의미다. 즉 성부와 성

한다.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는 상호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또는 ‘코이노니아(koinonia)’의 하나님이라고 하며(요 17:20~23),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이다.¹⁵⁶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는 미성숙한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 같지만 이내 흘려보내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식으로 자랑하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¹⁵⁷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 방식’인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방식 역시 ‘공동체적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선교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위대하신 능력과 통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여 말씀과 제자 훈련에만 치우쳐도 안 되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능력과 기적과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만 치우쳐도 안 되며, 모든 사역이 서로 돕고 섬기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공동체가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지 말고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¹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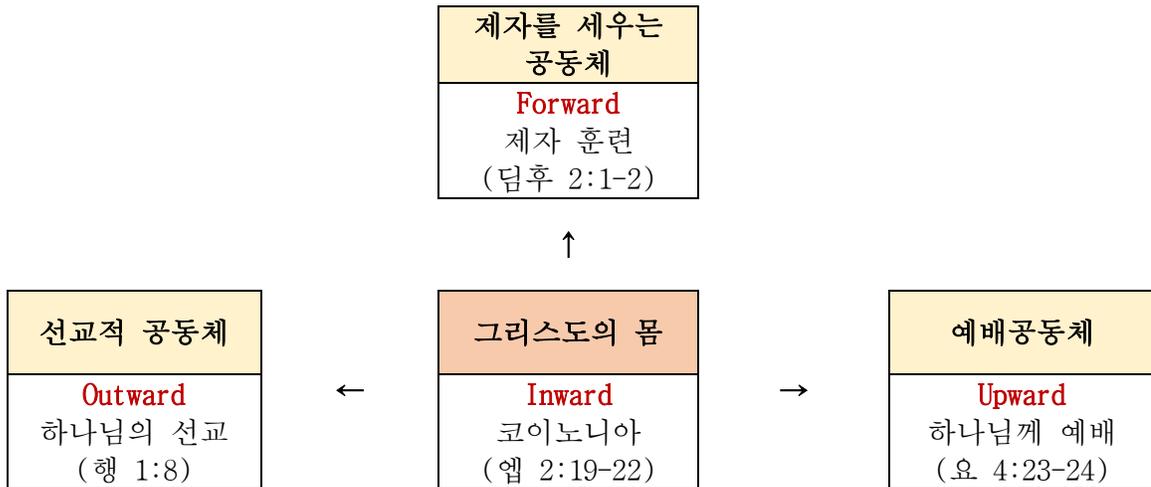
자와 성령께서는 ‘페리코레스시스’ 곧 상호통재(相互通在)를 통해서 일체되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다. 이 통일성 때문에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성자는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성령은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페리코레스시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다.

¹⁵⁶ 이평강, 「셀리더 순장 목자 도움서」, 31.

¹⁵⁷ Ibid., 36.

¹⁵⁸ Ibid., 37.

< 표 3 > 건강한 교회공동체



위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공동체라면 ‘예배공동체’와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다(마 16:16).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교회공동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의 모습을 비로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배제된 신앙이란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며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각 기능을 발휘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연결되어 주님의 건강한 몸, 곧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6~27)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1:18)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 셧느니라(엡1:22)

이러한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몸은 머리를 통해서 움직여진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몸은 움직일 수 없다. 몸이 머리와 단절되거나 신경 체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자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었고(롬5:10, 10:9),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요1:12).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러한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선언하며(롬12:5; 고전 12:27) 언제나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골3:15). 다시 말해 구원받음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차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다.¹⁵⁹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음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이원화시키며,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한 시대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나아가 교회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긴다. 여기에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¹⁵⁹ Ibid., 47.

한국교회가 이단이 발흥하고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교회당이 없어서도 목회자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도처에 수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엔조이(Enjoy)’하거나 ‘쇼핑(Shopping)’할 뿐이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된 삶의 이야기를 나눌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이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존중과 상호배움, 상호 섬김, 상호 나눔의 삶이 없으므로 홀로 외로워하며, 신앙생활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 앞에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역조직을 과감하게 폐쇄하고 새로운 식탁공동체인 ‘목장공동체’로의 구조변화(Paradigm Shift)는 성경의 정신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는 진정한 성경적 회복 운동이다. 목장공동체는 성도들의 ‘식탁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식탁공동체로 초대’하신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이 땅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목장공동체는 초기 교회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겠다

2. 목장공동체의 필요성

연구자가 목장공동체(교회) 운동과 사역을 펼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

다.

첫째,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전 교인들이 함께 ‘모임’과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사람이 모여서 그 모임의 깊이를 나누고 상호 인격적, 신앙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소그룹(Small Group or Cell Group)이어야 한다. 이 소그룹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은 ‘소그룹’이었다. 그러므로 목장은 최대 12명의 목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호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하게 된다.

둘째, 기존 ‘구역(Block)’ 구조의 한계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존의 구역조직은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경우 거의 아사(餓死) 상태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편성된 구역원들의 연령층과 직업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구역조직은 주로 ‘여성성도’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구역예배도 금요일 오전에 드리는 것으로 고정된 방식이었다. 80년대 말까지 권위주의 시대가 이어지던 시절에는 어른들의 권위로 젊은 여성부터 중년과 노년이 구역에 편성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또 그렇게 참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권위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또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평일에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일부 중장년과 노년층의 사역이 되고 말았다.

셋째, 성도들의 참여 환경의 변화이다. 구역에는 남성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은 전혀 없다. 그래서 남성 성도들은 구역은 여성들의 모임 정도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성도들이 참여할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역조직이 구역장을 임명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목장은 목원들이 선출하는 구조이다. 목장에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목자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구역조직은 ‘구역장’이 모두 여성인 반면 목장은 그 목장에서 선출한 성도가 되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선출하게 된다. 물론 선출 후 교회에 보고하면 형식적이지만 담임목사가 목자를 임명한다. 또한, 목장은 남성과 여성,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목장사역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장 모임의 시간과 장소도 각 목장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소통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구역은 일방소통이라면 목장은 쌍방소통이라는 것이다. 구역예배는 구역장이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쳤다면 목장의 목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 또는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목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하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는다. 목장 모임 시에는 반드시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초기교회처럼 어느 장소에 모여서 먼저 안부를 묻고 또 빵과 차를 나누고 일상의 삶을 나눈다. 그리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며 상호 ‘은혜 나눔’ 시에 깊이 경청하는 것은 상호배려, 상호도움, 상호 나눔, 상호 섬김의 장(場)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교회공동체의 주인, 그 머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로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느끼려면 반드시 삶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삶은 복음의 삶이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았으며, 어떻게 역사했으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식탁공동체에서 반드시 토라(Torah), 즉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가족의 식탁공동체 시간에 식사하면서 반드시 토라를 나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다. “음식이 없는 곳에는 토라가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에 음식도 없

다”. 탈무드에는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면서 토라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는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수 천 년 동안 그 역사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바로 가족 식탁공동체에서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과의 식탁공동체의 자리에서 언제나 ‘율법(말씀)’ 을 나누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시 목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 하며 삶 속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녹아졌는지를 나누는 것은 목장공동체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장공동체 안에서 목원들은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눔을 통해서 공감하고 동감하고 서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지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목장이 단지 모임(에클레시아) 그 이상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를 구현해 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오늘날 교회안의 대부분의 양육과정은 일방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 제자 훈련을 받지만 이러한 교육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다.¹⁶⁰ 그런 교육은 대부분 지식에 머무르며 실습을 하더라도 그 교육하는 기간에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삶은 지적 성장만이 전부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막8:34)은 아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 를 받은 성도들이 목장사역을 통해서 상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 목장 사역은 단순한 예배나 성경공부가 아니라 삶의 코이노니아, 영적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목원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과 삶’ 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 성

¹⁶⁰ 이평강, 「셀리더 순장 목사 도움서」 (서울: 두란노, 2019), 10.

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목장사역을 통해서 진정 ‘예수쟁이’, ‘예수꾼’ 으로 변화되어 진다. 각 목원들은 목장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던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의 시작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렀던 신앙이 목장이라는 ‘공동체의 신앙’ 을 경험하게 된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 기도와 힘이 되어주는 삶의 동행자, 동참자, 동역자로 세움 받게 된다. 이러한 목장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며,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진정한 나눔과 교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 즉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다.

그 교회의 원형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공동체(교회)가 보여 주며 나아가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 준다. 이러한 흠어진 초기교회는 적어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이 공인받기까지 약 300년 동안 그렇게 흠어진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시련, 내부의 이단자들과 배교자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갔다.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 3월 3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칙령을 선포하고, 321년 7월 3일을 주일로 로마법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문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교회는 흠어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거나, 비밀리에 모일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제는 ‘모이는 것’ 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것은 로마제국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었다. 신앙심이 애국심과 결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회는 로마제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화려한 교

회당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가시적인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면서 불가시적인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며 도움을 주는 공동체였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그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갔다는 것이다. 예배의 음악과 형식, 교회 건물을 자유롭게 세우는 외형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교회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갔다. 교회공동체가 더불어 섬기고 나누고 돕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리와 조직, 예배와 개인주의 신앙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¹⁶¹ 다시 말해 구원받음과 주님의 몸 된 지체 됨으로써의 공동체 의식은 약해져 갔다. 결국, 공동체와 분리된 신앙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채 개인주의 신앙에 머물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공동체를 해체하려는 계략이다.¹⁶² 교회공동체 신앙은 버려두고 개인 구원이라는 프레임(Frame)에 가둬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로 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두 번째 계명에는 민감하지 않고 은근슬쩍 흘려보낸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왜곡시키고, 공동체 신앙을 무너뜨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이제 더 이상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려, 서로 나눔, 서로 도움,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신앙이 없는 자신들

¹⁶¹ Ibid., 53.

¹⁶² Ibid., 55.

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푹푹 뭉친 모습으로 자신의 축복과 구원만을 움켜쥐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도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공동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지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 또는 개인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개인주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의 적일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의 신앙을 무시한 개인주의 신앙은 교만, 이기심, 불만과 불평, 핑계, 비난, 무관심, 쾌락, 욕심, 물질주의, 자기 의(갈5:19~21)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교회성장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끝까지 사명을 잘 마치는데는 비율은 60%에 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¹⁶³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은사(Karisma)’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은사를 공동체와 상관없이 사용할 때 자기과시와 교만의 죄에 빠져 자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넓게는 교회공동체, 작게는 목장교회 공동체를 통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으로 나가야

¹⁶³ Ibid.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지체와 더 붙어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모임)’와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교제)’를 회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교적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자가 목회하는 청주서남교회는 대형교회로서 초기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그룹인 목장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초기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공동체의 진수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목장공동체의 유익

연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는 구역예배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상황도 비슷한 형편이다. 기존 구역조직은 여성 중심으로 남성은 배제되었으며, 세대 간의 소통은 부자연스러웠으며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열악하였다. 현대인들의 자아실현 욕구와 경제적 활동의 요구에 따라 여성 성도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구역조직’에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과 삶을 알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의 관계로 변질하고 말았다. 또한, 구역의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 시대정신이 더 이상 젊은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의식구조가 변화된 환경에서 구역조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구역조직(Block syste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상호 편리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구역이라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목사는 굳이 구역을 다른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이라는 잘못된 관습에 얽매어 ‘구역’을 시대에 맞는, 그리고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롭게 변화된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를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구역조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방치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⁶⁴

오늘날 성도들은 소위 ‘끼리끼리’의 문화를 선호한다. 같은 연령, 같은 취미 등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구역조직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상하좌우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목장’은 수직적인 모임이 아니라 수평적이며, 상호 반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구역을 구역조직은 과감히 해체하고 목장 사역으로 전환하였다.¹⁶⁵ 이렇게 목장공동체로 전환함에 따라 성도들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다. 둘째는 목장공동체 사역에 대하여 아직은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다. 셋째는 목장 사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부정적 반응이란 “목장공동체를 꼭 해야 하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나는 서로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장공동체를 목회의 최우선 사역으로 선정하고 애쓰는 이유는 목장공동체가 초

¹⁶⁴ 연구자가 사역하는 청주서남교회도 2017년 10월 1일 부임 후 구역예배는 일주일에 20구역 미만인 드리고 있었으며 다른 구역들은 구역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¹⁶⁵ 연구자가 시무하는 청주서남교회는 2018년 12월 30일부로 구역조직을 해체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목장사역으로 전환하였다.

기 교회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혼자만의 믿음 생활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 함께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칭송을 받았으며,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¹⁶⁶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나 초기 교회공동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의 많은 성도들은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나눔을 꺼리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한다.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참된 교회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목장사역의 기본 원리는 5대 원리가 있다. ‘상호 존중, 상호 배움, 상호 섬김, 상호 나눔, 상호기도’의 원리이다. 목장 안의 목원들은 영적인 가족이며, 그래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¹⁶⁶ 행2:43~47

< 표 4 > 구역과 목장공동체 비교

형 태 내 용	구 역	목장공동체
사역시기	60~ 80년대	90년대 이후
구성	동일지역	또래 성도
모집인원	3명 ~ 12명	3명 ~12명
모임시간	금요일, 고정성	자율적 시간 결정, 유연성
모임장소	구역원의 가정	카페, 식당, 교회, 세미나실 등
모임횟수	매주 1회	월 2회 이상
모임형태	예배(Worship)→교제(koinoia)	교제(Koinoia) → 예배Worship)
모임유형	주로 여성들 (남성들 참여 저조)	베드로목장(부부), 바울목장(싱글) 남, 녀 모두 참여
교재	구역공과 교재	교재 없음
모임내용	학습(Study)	주일설교 나눔(Share)
헌금관리	교회 재정 귀속	자율 관리 및 사용
리더의 역할	교사, 가르침	안내자, 인도자
리더의 임명	담임목사	목장공동체에서 자율적 선출
리더의 훈련	담임목사	담임목사, 마을리더십(부목사등)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과 목장의 공통점은 ‘소그룹중심’으로 최소 2명에서 12명까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역과 목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 소그룹의 명칭을 ‘구역예배’로 한정하지만 목장 사역은 ‘목장예배’ 또는 ‘목장 모임’으로 부를 수 있다. 목장 모임으로 부르는 이유는 초신자인 경우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은 초신자인 경우 목장 모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세계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교방식은 ‘교회 모임(에클레시

아)’에 참여하면 ‘교제(koinoia)’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했다면 먼저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의 모임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초신자의 경우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낯설고 생소한 경험이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를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과 자연스러운 교제가 가능한 목장 모임(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교인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구역이 교회의 부속 조직이었다면 목장공동체는 부속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구역이 동일지역 구성이라면 목장은 같은 또래나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 등으로 구성된다. 구역은 모임 장소가 구역원의 가정이라고 한정된 반면 목장은 카페, 식당, 교회, 세미나실, 야외 등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목장 모임은 부부가 모일 수 있는 베드로형과 개인적 사정으로 여성 또는 남성들만 모일 수 있는 바울형, 이른바 ‘싱글형’ 목장으로 구분하였고,¹⁶⁷ 베드로 목장이나 바울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는 ‘예비목장’에 편성하여 언제든지 베드로나 바울 목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목장에 편성함으로 자신이 목장 편성에 제외되었다는 불필요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모임의 횟수도 구역은 주 1회였지만 목장은 월 2회 이상만 모이는 것으로 유연성을 두었다. 구역은 구역교재를 사용하여 구역장이 가르치는 학습(Study)이 중심이지만 목장은 따로 교재를 두지 않고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Share)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구역장에 의한 일방적 가르침 구조보다는 상호 은혜를 나눔으로 상호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 가르침보다는 돌아가면서 개인의 이야기

¹⁶⁷ 바울형 목장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가정을 배려하기 위한 목장 편성이다.

를 하는 구조는 그 모임이 흥미롭고 참여도에 있어서 훨씬 강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역에서 리더는 가르치는 자이지만 목장에서 리더는 ‘인도자’ 또는 ‘안내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구역예배 시 드러지는 헌금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본 교회의 재정에 귀속되었지만 목장공동체의 헌금은 목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그래서 헌금을 목원들의 경조사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교제의 친밀감을 높이고, 목장공동체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구역조직에서 구역장의 임명은 담임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목장의 목자는 목원들의 자율적인 선출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장의 자율적인 리더 선출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 가속화시킨다. 또한, 구역의 리더는 담임목사에 의해 훈련받지만, 목장의 리더는 부목사도 참여하게 함으로 담임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그 목장이 속한 마을 리더십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¹⁶⁸

이러한 목장공동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초기교회의 방식을 그대로 회복하는 사역이다. 초기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정에서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고, 함께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끼리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다. 지금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목회자 중심의 예배로서 설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

¹⁶⁸ 연구자의 마을 리더십은 마을 담당 목사, 마을 지기 장로, 부지기 안수집사, 섬김이 권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수의 회중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현대교회 예배가 삶의 정황에 따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초대교회의 예배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이다. 그러므로 목장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자(Ad Fontes)”라는 운동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해 내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초기교회의 모임 장소가 주로 집이나 지하실, 동굴, 무덤 등에서 은밀한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없었던 한계상황이 있었던과는 달리 현대 목장 모임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목장교회는 어느 곳에서도 그 ‘모임(ἐκκλησία)’과 ‘교제(κοινωνία)’가 가능한 구조로써 카페, 식당, 세미나실, 집, 교회 세미나실 등 다양하게 열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목자는 특별한 가르침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주일 말씀에 대한 ‘은혜 나눔(Sharing of Grace)’이다. 목원들은 반드시 주일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과 삶을 자연스럽게 목원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목장 모임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빵 한 조각, 커피나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서로 간단한 식탁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눌 수 있다.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가족됨을 확인하며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지속시키며 행복을 느끼듯이 목장공동체는 바로 ‘가족 식탁공동체’의 연장선 위에 있는 사역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영적 가족이 되었다. 이러한 영적 가족이 식탁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가족 됨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장(場)이다. 그 식탁공동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행복한 일이다. 그 식탁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며 자신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목장공동체 안에는 초기교회처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도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가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말씀의 은혜에 대하여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저 일상의 안부만 묻고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얼굴을 보고 사는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간의 깊은 영적 대화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아는 성도’로 지내는 것이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혼자 듣고 혼자 깨닫고 소위 혼자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물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경건에 유익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경건의 시간(Q.T)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적 경건과 거리가 멀다. 경건의 시간(Q.T)은 개인이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목장공동체는 말씀 앞에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그 공동체가 반응하고 적용한다. 목원들끼리 지난주 말씀을 자기 일터 또는 가정에서 적용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상호배움과 상호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나 자신이 깨달은 은혜만큼 다른 목원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호배움의 시간이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교회)를 통한 은혜 나눔은 말씀과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만나고 반응하는지 또 그러한 과정을 목원들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배움’과 ‘상호이해와 영적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공동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공동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래서 예전의 구역예배가 30분이면 끝났다면 대부분의 목장 모임(예배)은 2~3시간을 훌쩍 넘겨 버린다. 구역예배가 구역장의 일방적 교육 또는 설교로 채워졌다면 목장 모임은 목자의 인도만 있을 뿐이지 목자가 가

르치지 않고 모든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그리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보다도 소그룹으로 흩어진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그룹으로 모이기 어려운 방역상황에서 소그룹으로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것은 목장교회에 희망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목장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를 돌보며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COVID-19가 종식되더라도 언제 또다시 전 세계에 COVID-19와 같은 판데믹(Pandemic) 상황이 올지 모른다. 미래는 감추어져 있다. 그 감추어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목장교회’요, ‘목장 식탁공동체’이다. 이러한 목장교회를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장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¹⁶⁹ 그리고 그 가정에서 베푸는 식탁공동체에 참여함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며 자신을 나타냈듯이 몸이 살기 위해서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분이 필요함을 나누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먹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모이는 이유이다.¹⁷⁰ 초기 교인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타인을 초대하였다. 저녁 식사는 늦은 오후에 시작하여 저녁 늦게까지 지속하였고 그 시간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 자리는 게임이나 연주를 하기도 했

¹⁶⁹ Robert J. Banks, *A Day in the Worship of a first Century Christian*, 신현기 역, 「1세기 교회 예배이야기」(서울: IVP, 2017), 29.

¹⁷⁰ Ibid.

으며 서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¹⁷¹ 초기 교인들은 ‘모임’ 과 ‘교제’ 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¹⁷² 그들이 마주하는 식탁공동체의 자리는 곧 신앙 여정의 자리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교(A mission)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였으며,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목장공동체의 네 번째 목장공동체의 유익은 목원들 간에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인적으로 한 두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묵상 된 은혜를 다른 목원들과 나눔으로써 상호배움과 도움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은혜 나눔’ 은 결국 또 다른 목원을 제자 삼는 ‘상호 제자로 훈련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다섯째 목장공동체의 유익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COVID-19’ 와 같은 판데믹(Pandemic) 질병이 다시 전세계에 엄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판데믹 질병이 올 때, 현재 교회 공동체는 모임과 교제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음을 ‘COVID 19’ 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소그룹(Small Group) 중심’ 으로 성도들을 묶어 줌으로써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며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기교회가 공동체로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부활을 경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12제자 중 가롯 유다나 초기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과 그러한 시도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초기교

¹⁷¹ Robert J. Banks, *A Day in the Life of a First Century Christian*, 신현기 역,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서울: IVP, 2018), 43.

¹⁷² Ibid., 79.

회는 공동체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성도의 수는 적었지만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초기교회 공동체는 집에서 모일 때 먼저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수의 말씀을 되새김하였으며, 사도들의 증언과 영적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 목장교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 주는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경험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C. 목장사역

1. 목장사역을 위한 교회 행정

중요한 목회적 의무들을(설교, 교육, 심방...)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유능함이 필요하다. 교회 행정(Church Administry)은 “교역에 공헌하거나 또는 인도하는 모든 업무”를 가리킨다. 헬라어 ‘diakonia(봉사)’는 때로는 ‘행정’으로 번역되기 한다(고전 12:5, 고후 9:12). 오늘날 교회 행정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교회의 활동들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안내하고 촉진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교역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실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학문이다(Calvin). 성경에서 교회 행정의 주요한 근거로 삼는 내용은 출애굽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두고 있다(출 18:14-25).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소사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매우 과중한 사역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겐 족속이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

장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언하였으며 모세는 그의 말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역의 전체적 최종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으로 목회자의 일적 업무는 평신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무장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목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방법이 바로 ‘교회 행정’인 것이다.

목장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구체적인 행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담임목사의 목회를 위한 직속 사역 조직으로 ‘서남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이것을 담당할 목사와 성도들을 임명한다(담당목사, 총무, 서기, 회계). (나) 목장 사역의 핵심은 ‘교제’이다. 그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담임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 노트에 기록한 것을 목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눈다. 이러한 ‘은혜 노트 나눔’을 하기 위하여 ‘은혜 노트 사역자반’을 신설하고¹⁷³ 그 사역자반을 훈련시킬 인도자들을 임명한다. (다) 목장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구 제도와 구역제도 개편해야 한다. 연구자의 교회는 청주시와 인근의 세종시, 오송과 오창, 옥산 등 시외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관계로 교구를 행정 구(區)별로 편성하되 행정 이름 뒤에 ‘마을공동체’를 추가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교구가 행정적, 교인 관리 차원에서 호칭하였다면 ‘마을공동체’는 그 행정구역 안의 성도들끼리 상호 인사, 상호 교제, 상호도움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목회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시무하는 청주서남교회는 5개의 마을공동체로 개편하였다.

- 1) 상당마을공동체, 2) 서원백합마을공동체, 3) 서원샤론마을공동체, 4) 흥덕세종

¹⁷³ 은혜노트 사역자반은 총 4주 과정으로 주일 설교를 다시 듣고, 은혜노트에 순서에 따라 기록한 후 돌아가며 발표하고 인도자가 코칭해 준다. 과정을 다 마치면 수료증을 준다. 은혜노트는 연구자가 개발하여 교회 행정실에서 보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5) 흥덕청원마을공동체

이렇게 행정적 개편이 끝나면 (라) 각 마을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 마을 담당목사, 마을 담당장로(마을지기), 마을 담당안수집사(부마을지기), 마을 섬김이(권사 2명) 임명하여 ‘마을공동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십’을 임명한다. 이 마을 리더십에서는 마을 안의 성도들을 심방함으로 마을 안의 성도들을 물적, 영적으로 지원하고 섬기며 돌봄의 사역을 해야 한다. 특별히 환자들과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나아가 마을에서 특별히 담임목사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목사가 보고하여 목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이러한 마을공동체 리더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에 마을리더십 운영을 위한 재정을 편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목장사역의 실제

a. 목장의 구성과 유형

마을공동체 안에 구성되는 목장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 1) 성도들에게 설교와 세미나를 통하여 목장공동체의 의미와 유익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시킨 후 기존의 구역을 해체하고 각 마을공동체 안에 ‘목장’을 새롭게 편성한다.
- 2) 목장의 목원이 최소 4명에서 최대 12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 3) 성도들에게 목장 사역 참여 신청서를 받은 후 마을리더십에서 세밀한 검토와 조절을 한 후 가능한 비슷한 연령대, 소통되는 직업군, 서로 친밀관계가 이미 형성된 성도들, 동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목장을 편성한다.
- 4) 목원 구성 시 타 마을공동체의 성도들과도

자유롭게 목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원 구성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행정을 취한다. 5) 목자와 목자를 돕는 목동의 선발은 처음 목장 모임 시 목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담당 목사에게 보고하면 담당 목사는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 담임목사가 일괄 임명장을 주도록 한다. 6) 목장 사역은 한 달에 2회 이상 자율적으로 요일,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한다. 7) 목장 사역 시 반드시 주일 설교에 대한 ‘은혜 나눔 노트’를 작성하여 그 은혜 나눔을 주목적으로 하며 겸하여 삶을 나눈다. 8) 목장별 재정은 목장예배 또는 모임 시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며 그 헌금은 목동이 관리하며 그 헌금의 집행은 각 목장별 자유롭게 한다. 9) 목장의 헌금은 사사로이 집행될 수 없으며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목장의 회의를 통해서 목자나 목동이 지출해야 하며 이러한 회계의 과정은 교회에서 목장별로 배부한 회계장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 감사는 각 마을별 리더십에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실시한 후 담임목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목장의 유형은 가) 베드로 목장 나) 바울 목장 다) 예비목장으로 분류한다.

1) 베드로 목장은 부부가 모두 목장 사역에 참여하는 목장이다. 베드로형 신앙공동체는 교회가 추구하는 식탁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이러한 베드로형 식탁공동체는 부부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상호존중과 배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2) 바울 목장은 싱글로 참여하는 목장이다. 바울 목장은 사도바울이 독신으로 사역한 것에 착안하여 가정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목장을 말한다. 이러한 바울 목장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 분들이 서로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베드로 식탁공동체에 속하면 부자유스러울 수 있는 면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예비목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목장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목장 사역에 참여해야 할 각 마을별 성도들의 목장이다. 신앙생활의 초보자 또는 개인적 사정

으로 바울이나 베드로 목장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개선되거나 해결 되면 언제든지 바울이나 베드로 목장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교인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예비목장은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다른 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므로 마을리더십에서 이들이 차츰 베드로나 바울형 목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

b. 목장사역의 과제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혼자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는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함께 있는 곳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주일예배 시간에 ‘신앙고백(Confession)’ 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앞뒤 좌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과 내가 같은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야훼 하나님을 같은 주로 섬기며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 나아가 이러한 신앙고백을 통해 그 형제와 자매가 다른 신앙, 즉 사이비와 이단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서로 지켜 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롬10:17)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동행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LifeWay)는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목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는 사역 중 최우선 과제로

로 ‘교회 내 리더와 봉사자 발굴’로 꼽았다. 이어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 형성’ (75%), ‘성도들의 무관심 또는 헌신 부족’ (75%), ‘개인적 기도의 일관성’ (72%), ‘주일성수’ (64%), ‘사회와 회개’ (61%), ‘시간 관리’ (51%)가 뒤를 이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초기교회나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 역시 교회 내 새로운 리더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목장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목장을 이끌 리더(목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훈련시키느냐는 것은 중요한 목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리더를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초기교회의 리더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초기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다. 주님은 부활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셨고 그 120명의 제자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 결과 그 초기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후일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방지역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었다. 이렇게 목장 사역은 바로 ‘공동체 신앙’의 핵심 원리를 실천하는 장(場)이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체험하는 곳이다.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이것을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또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한다. 이 대명령, 대위임령의 내용은 다섯 가지다.¹⁷⁴ (1)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¹⁷⁴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고성삼 옮김, 「목적이 이끄는 삶」 (서울:디모데, 2002),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Worship)’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사역(Ministry)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섬길 수 있다. (3)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전도(Evangelism)’ 또는 ‘선교(Mission)’ 라고 한다. (4)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교제(Fellowship)’ 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 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닮음의 과정을 ‘제자도(Discipleship)’ 라고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대 명령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사명(mission)도 아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 라고 복수로 말씀하셨다. 즉 이러한 대 위임령은 공동체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소그룹(목장)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장교회에 참여함을 통해 주님의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다. 초기교회부터 소그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27:17). 철이 다른 철을 날카롭게 만들고 친구가 다른 친구의 삶을 빛나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상호 복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따로가 아닌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살전

5:11)¹⁷⁵

초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에 근거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전11:23~25)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다.¹⁷⁶ 이러한 성만찬, 식탁공동체의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임재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적으로 임재 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한다.¹⁷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격적 임재는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가 서로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경험으로 이어진다.¹⁷⁸ 성만찬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임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일상에서의 임재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¹⁷⁹ 그러므로 목장공동체는 식탁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다른 성도들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목장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식탁공동체로 초청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대한 최상의 환대 표시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식탁공동체로 초대하셔서 ‘영생의 식탁’으로 바꾸어 주시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식탁공동체’로 초청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영생과 구원의 식탁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전도요 선교이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가 식탁공동체가

¹⁷⁵ Ibid., 400.

¹⁷⁶ Willimon, *Sunday Dinner*, 51.

¹⁷⁷ Ibid., 55.

¹⁷⁸ Ibid.

¹⁷⁹ Ibid.

되어야 하는 것은 초기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장공동체를 통한 ‘식탁공동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장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식탁공동체’, 즉 ‘확장된 식탁공동체’를 지향한다. 목장공동체는 식탁공동체로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동시에 하늘 양식을 함께 나누는 모임(에클레시아)과 교제(코이노니아)의 장(場)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장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또한 목장공동체의 모임과 교제를 위한 확고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사역자(목자와 목동) 훈련과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c. 목장사역의 유의사항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렀던 신앙이 목장이라는 ‘공동체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 기도와 힘이 되어주는 삶의 동행자, 동참자, 동역자로 세움 받게 된다. 이러한 목장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며,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진정한 나눔과 교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 즉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목장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목장의 자율성 보장’이다. 목장의 인도자인 목자와 그 목자를 돕는 목동을 세우는 일이다. 목자와 목동은 목장의 목원들이 직접 선출하여 마을공동체 리더십에 보고하면 마을에서는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새해 첫 주 임명식을 한다.

둘째, 목장 편성은 지역이나 마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예전의 구역이 지역조직이었다고 하면 목장은 ‘끼리끼리의 모임’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여전도회 또는 남선교회 또는 각 사역국에서 믿음에 관한 소통이 잘 되는 분과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예비목장을 두어야 한다. 목장 사역은 구역과 달리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권하되 개인의 형편상 부부가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형편상 목장 사역이 어려운 경우들을 고려하여 ‘예비목장’에 편성하여 두면 목장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속하고 싶은 목장을 마을 리더십에 이야기하여 목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 만약 예비목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며 추후 목장 사역에 참여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목장은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목장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계속 주고 또 마을 리더십은 예비 복원들에 때를 따라 목장 사역에 참여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

넷째, 목장의 헌금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구역헌금이 모두 교회 재정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면 목장의 헌금은 목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반드시 목장의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회계장부는 마을 리더십에서 연중 2회 정도 체크하여 공적헌금이 조금이라도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목장의 헌금은 목장의 친교비나 경조비 그리고 교회의 특별행사 등에 참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목자와 목동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한다. 목장 운영이 자율적이지만 담임목사는 목자들을 연중 2회 정도는 반드시 목장 사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목자와 목동들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격려와 위로를 한다. 이러한 목장 사역은 결국 목자들로 하여금 목원들을 섬기며 돌봄 사역을 통해 담임목사의 심정을 조

금이러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다.

여섯째, 건강한 목장은 목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가해야 한다. 12명 이상이 넘으면 목장사역의 본래 취지에 반하고 단순히 목원들이 많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따라서 12명 이상이 넘으면 목자와 목동은 분가를 통하여 ‘목장을 신설’ 하고 자매 목장으로 삼으며, 이 분가의 과정을 마을 리더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설문조사와 인터뷰

본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주서남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목장 사역 설문지>.¹⁸⁰

살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본 교회 목장 사역 부흥을 위하여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형제, 자매님의 응답은 목장사역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답은 번호로 해 주시고, 목장 사역의 유익함과 건의사항은 자유롭게 써 주세요.

1. 목장 사역 이전에 구역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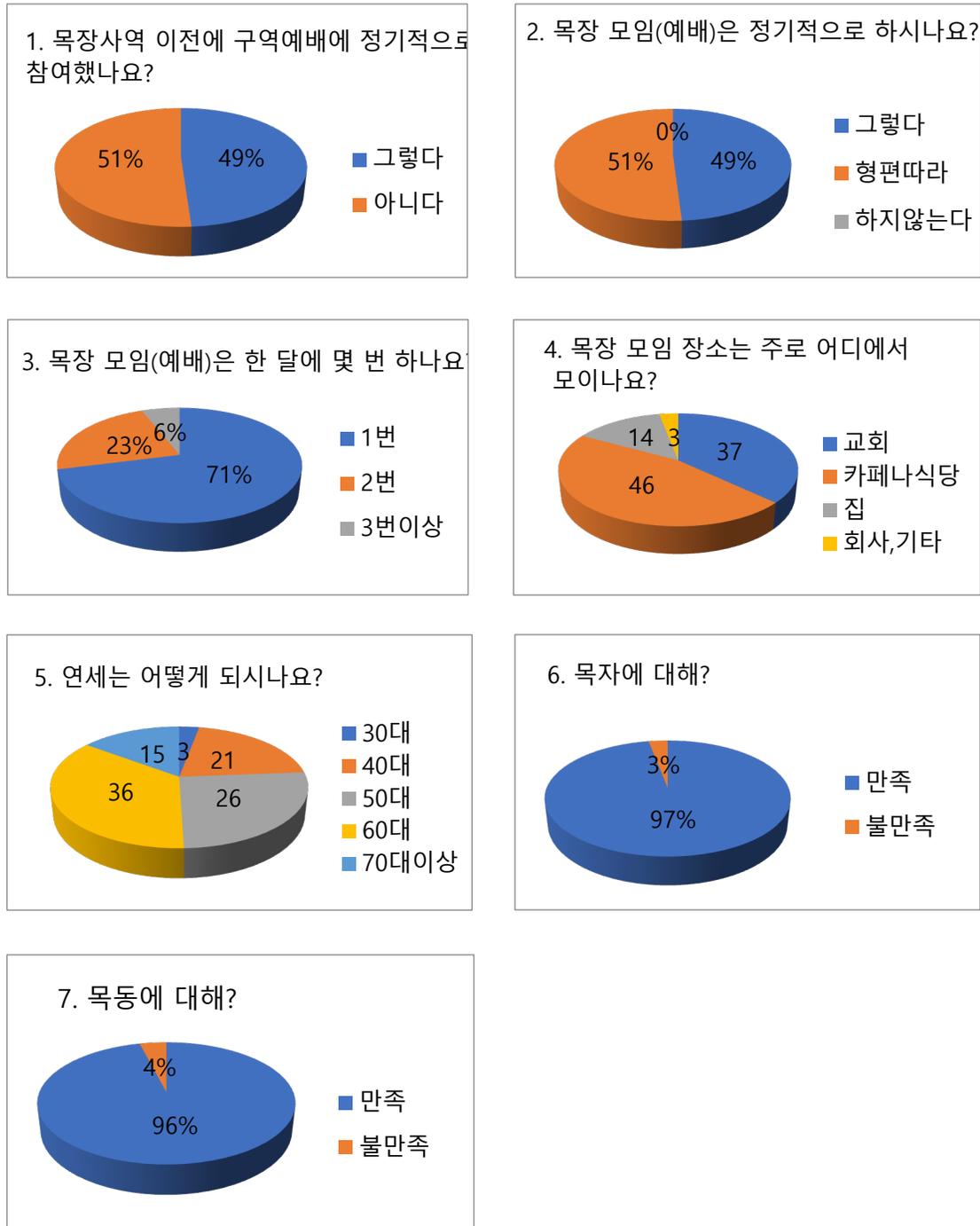
¹⁸⁰ 목장 사역에 대한 설문조사는 본 교회 교인 70명을 대상으로 Google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2년 2월 8일 ~ 11일까지이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목장 모임(예배)은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① 그렇다 ② 형편 따라 한다 ③ 하지 않는다.
3. 목장 모임(예배)은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4. 목장 모임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모이나요?
① 교회 ② 카페나 식당 ③ 집 ④ 회사, 기타
5.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6. 목자에 대해?
① 만족 ② 불만족
7. 목동에 대해?
① 만족 ② 불만족
8. 목자와 목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은?
9. 목장 모임의 유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0. 목장 모임에 대해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11. 앞으로 여건이 되면 목장 사역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이름: _____ 직분: _____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장승권

< 표 5 > 목장공동체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¹⁸¹



¹⁸¹ 청주서남교회 목장 사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로 분석한 것이다.

위의 설문조사 1)번과 2)번을 종합하면 목장 이전의 구역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분들은 약 50%였지만 목장 사역은 정기적인 모임과 형편 따라 하는 모임을 포함하면 약 100% 참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장 모임도 2번 이상이 23%, 1번 이상이 71%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COVID-19의 영향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가 2회 이상 모이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목장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장 모임임은 14%가 집, 37%가 교회, 46%가 카페나 식당이어서 목장 모임은 예전의 구역예배와 달리 카페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나이는 5-60대가 62%로 과반수를 넘으며 40대가 21%로 그 다음을 보이는데 연령층이 낮을수록 목장 사역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이들 육아 관련하여 연령층이 높을수록 상대적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6)번 항과 7)번 항의 목자와 목동에 대한 만족도는 97%와 96%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목자와 목동을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또 그 운영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자와 목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저는 2020년도에 목장에서 첫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목동분들께 정말 배운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들로 인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여00 집사
- ② “목원들을 위해 매일 좋은 글귀로 격려하며 기도로 동역하며 애써주고 계셔서 목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안00 권사
- ③ “목자님과 목동님 목장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목장의 가정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협력 잘하겠습니다 ~♡” - 김00 권사
- ④ “언제나 따뜻하게 안부 물어주시고, 섬기시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 김00 집사
- ⑤ “최선을 다하시는 목자님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 김00 권사
- ⑥ “목자님과 목동님과 목원들의 열심과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 나도 본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00 권사

- ⑦ “우리 목자님과 목동님은 열정이 많으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도 자주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목원들을 이끌어주시고 사랑 많으신 리더분들이십니다.” - 정00 집사
- ⑧ “은혜 나눔에 있어서 목자의 코멘트가 자꾸 길어집니다. ^^” - 윤00 권사
- ⑨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모임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형편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톡이나 말씀을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목장사역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00 집사
- ⑩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연락으로 확인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00 집사

이러한 의견 대부분은 목자와 목동의 사역에 대하여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다만 어떤 목자의 경우 너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함으로 목원들의 불만이 되는 것은 유의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장 모임의 유익함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하였다.

- ①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나눌 수 있어 좋다. 중보기도와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 고00 권사,
- ②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말씀으로 받은 각자의 은혜와 생각을 공유하니 함께 하는 공동체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 전00 집사
- ③ “목원들끼리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 강00 집사
- ④ “혼자의 믿음은 외로웠습니다. 힘든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통하여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에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나는 나, 너는 너,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학습하고 훈련하여 함께 동행, 동역하며 탄탄한 믿음으로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체험하며 몸으로 체득하고 증언하는 은혜가 충만한 목장,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 이야기로 세상을 물들

이는 것, 이 모든 물들임은 흥덕 세종 11목장,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됨이 물들어짐입니다.” - 안 00 집사

- ⑤ “삶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할 수 있음에 좋습니다.” - 정00 권사
- ⑥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는 목장 가족분들의 중보기도와 섬겨 주시는 마음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으니 배우고 받은 사랑을 이제 제가 나누고 살겠습니다.” - 여00 집사
- ⑦ “주일 받은 말씀을 흘러 내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며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모이기를 힘씀으로 서로의 형편을 알아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며, 마주하는 식탁을 통하여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안00 권사
- ⑧ “푸른 목장이 푸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 강00 권사
- ⑨ “새 가족이라 목장 모임을 통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고민을 같이 나눔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황00 집사
- ⑩ “교회 확장세로 교인은 많지만 개인의 영적 확장은 줄고 있다고 봅니다. 소그룹 모임은 이런 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개인, 가족 모두에게 신앙적인 관심이 좀 더 깊어지고 유익을 주어 개인 신앙의 문제로 인한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앙성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00 권사
- ⑪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격려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 목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 김00 집사
- ⑫ “저희 목장은 서로가 자신을 내어놓고 허물없이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 권00 집사
- ⑬ “만나면 반갑고 못 보면 궁금하고 걱정되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모임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과 관심의 끈으로 서로를 뽕뽕 묶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며 서남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유익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 김00 권사
- ⑭ “소그룹이다 보니 스스럼없이 나눔이 이루어지고 서로 돈독하여집니다.”
- 맹00 권사
- ⑮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00 집사
- ⑯ “목장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상황에 여러 상황이 여의

치 않아 모임을 자주 갖기 힘들었으나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서로 더 알아가고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귀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 이00 집사

- ⑰ “은혜로 소공동, 사랑으로 하모니를 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 류00 권사
- ⑱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다 함께 은혜 나눔도 하고 기쁨, 즐거움, 감사, 슬픔을 함께 하는 공동체 소모임으로 저의 믿음 생활은 목장의 힘이 매우 큽니다. - 정00 집사
- ⑲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목장 모임입니다.” - 조00집사
- ⑳ “목장공동체 사역은 솔직한 삶의 나눔과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며 배우고 익힌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장로
- ㉑ “목장공동체 사역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나눔의 삶을 통해 나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 신앙의 체질을 바꾸어 주었다고 봅니다. 개인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전환되는 유익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 000 장로
- ㉒ “목장공동체 사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함으로 또한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들간 삶을 나누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 000 장로
- ㉓ “목자, 목동, 목원 모두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격려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 000 장로
- 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하고,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는 초대교회 식탁공동체가 목장공동체로 확실히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 000 장로
- ㉕ “교회가 위기에 처한 시대, 목장공동체의 신앙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 000 장로

- ⑳ “목장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목원들의 어려움도 살피며 서로 돕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000 장로
- ㉑ “은혜 노트를 통해 말씀 나눔으로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복음으로 먼저 나를 물들이고, 복음으로 목장을 물들이고, 나아가 교회를 물들이는 목장이고 싶습니다. 내 부족한 믿음을 공동체가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작은 목장은 작은 교회라는 인식에서 참 귀중한 공동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000 장로
- ㉒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 속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있고, 자신을 활짝 내려놓는 공동체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 000 장로
- ㉓ “목장공동체 사역은 연령이 비슷한 분들과 교제나 친교를 하기 좋으며, 은혜나눔을 하다 보니 거룩한 부담과 설교 말씀을 다시 몇 번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 000 장로

이러한 목장 사역에 대하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 ① “어떤 모임이든 장기적이 되면 아주 단단히 묶여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싫고 자기들만으로 결속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년에 한번 목장이 순환되어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 정00 권사
- ② “지금까지는 목자와 서로 낯짜 요일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죄송했으나 1월부터는 월 1회 마지막 주에 꼭 모이기로 약속 반응도 좋았음을 감사드립니다.” - 강00 권사
- ③ “각자의 시간을 할애해서 목장 모임을 더욱 돈독히 합시다.” - 장00 집사
- ④ “야외활동 모임(예 - 소풍 등산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하면 더 좋은 모임 등)을 하면 더 편한 모임이 될 듯합니다.” - 안00 집사
- ⑤ “목장 모임이 확장하는데 마을공동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라도 모여야 서로를 알 수 있고 목장이 확장되면 분업을 하고 다시 새 목장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00 권사

⑥ “목장의 목원들이 순환되어 골고루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00 집사

위와 같이 목장 모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목장 사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¹⁸²

연구자: 목장 사역에 대하여 얻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 목장 사역에 대하여 느낀 점은 처음에 목자로 세워졌을 때는 광야에 뚝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은혜 나눔 교육’ 과 ‘신앙의 토대 공동체 학습’ 을 통하여 목자와 목동은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목장이 무엇이며 목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¹⁸³ 목장의 유익함으로는 첫째, 타 교회에서 전입한 교인들이 빨리 적응하는데 유익합니다. 둘째, 목원들과 친교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¹⁸⁴ 셋째, 목장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내용과 알림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각인이 되고 영적건강을 유지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하여 목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목장사역을 통하여 훈련받은 목원들이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여섯째, 목장사역을 통하여 목장이 부흥하여 분가(分家)하여 다른 목장을 세우고, 서로 형제목장으로서 연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구자: 목장 사역에 대한 건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종원: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목장을 구성할 때 담당목사와 섬김이들이 목원들의 형편을 살펴서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목장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

¹⁸² 청주서남교회 담임목사 목양실에서 2022년 2월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종원 안수집사, 고미경 권사, 전금옥 집사, 김승옥 권사와 목장 사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¹⁸³ 연구자가 사역하는 청주서남교회는 ‘서남아카데미’ 라는 성도 양육기관을 통하여 ‘은혜 나눔반’ 을 4주 코스로 이수하게 함으로 목장 사역 시 “은혜노트 나눔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TEE공동체 학습을 통해 ‘신앙의 기초’ 를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기수 110여명의 성도들이 수료를 하였다.

¹⁸⁴ 목장공동체에서 등산, 소풍, 자체 음악회, 식사초청 등 다양한 친교행사를 통하여 목원들의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서는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목장모임시 담당목사님과 섬김이들이 각 목장을 순회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분기별로 마을별, 목장별 수련회를 하고, 각 목장별 사역 내용을 발표함으로 다른 목장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목장사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목장으로 배정하여 그 목원이 자연스럽게 목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을담당 목사님이 상담을 통하여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목장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토대’, ‘은혜노트 나눔반 교육’, ‘통성경 읽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김승욱: 우리 목장이 100% 출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종원: 목장공동체를 하지 않았으면 억울할 뻔 했습니다.

고미경: 각 마을 목자들이 이종원 집사님의 목장 사역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금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연구자: 다음 목장 수련회시 위 내용을 잘 정리해서 꼭 기초발제 해 주세요!

김승욱: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구역예배에 대해 상당히 부담과 은혜도 되지 않았고 전도사님이 예배 인원과 헌금 파악하는 것에 대해 보고서 내는 것을 거것으로 보고한 적도 있지요! 그것이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이종원: 제가 흥덕 19목장을 작년에 분가하고 다시 목장을 개척하였는데 흥 세 11목장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목원들에게 좋은 글, 찬양도 올리고, 건강상식, 음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니 서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고미경: 처음 목장을 시작했을 때 목원들을 묶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종원: 저도 목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들 서먹했지요! 다들 모르는 성도들이었고 또 어떻게 목자를 할지 몰랐지만, 은혜로 소.공.동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알게 되었고, 자주 대화를 하고 목장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은혜 노트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전금옥: 저희도 30~50대 있는데 은혜 노트만 하다 보니까 30~40대는 뒷걸음 치더라고요!

이종원: 그래서 목원들 간의 상호식사와 대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 상호 기도, 상호도움을 주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목장공동체는 ‘식탁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목장의 식탁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는 식탁공동체요, 천국의 식탁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장공동체는 ‘천국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목장공동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교회를 살리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Faith of Jesus) 함께 가는 목원들끼리 서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도와주며 함께 천국을 향해 동행하는 것이 목장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장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역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

위와 같은 설문과 인터뷰 결과는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목장 사역은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장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들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V. 결론

‘COVID 19’ 는 전 인류에게 인류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더욱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삶에 대한 성찰은 더욱 종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퓨리서치가 1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관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14개국 모두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 라는 응답이 ‘약해졌다’ 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¹⁸⁵ 미국이 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은 스페인 16%, 이탈리아 15% 등의 순이었고 평균값은 10%였다. 그러나 한국은 믿음이 ‘강해졌다’ 라는 응답이 10%에 불과했고, ‘약해졌다’ 라는 응답이 9%로 믿음이 강해진 것과 약해진 것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미국의 경우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49%가 ‘코로나19’ 이후 믿음이 성장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가톨릭 교인이 35%,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5%가 성장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이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간의 결속력 변화에서도 14개국 응답 평균이 ‘더 강해졌다’ 는 32%, ‘더 약해졌다’ 는 8%로 코로나19가 가족간의 결속력 강화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18%로 일본과 함께 가족 결속력에 있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¹⁸⁶

‘Post COVID-19’ 후어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서구의 나라들은 판데믹

¹⁸⁵ Ibid.

¹⁸⁶ Ibid.

(Pandemic)의 고통이 종교적 성찰과 고양 그리고 가족간의 결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나는 데 반하여 왜 한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지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삶의 위기 순간에 종교가 그 의미와 희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겠는가? ‘With Covid-19’ 시대에 ‘Beyond Covid-19’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초기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목장공동체는 초기교회의 원형, 신약의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에 ‘COVID-19’ 보다 더 강력한 ‘판데믹 (Pandemic)’ 이나 재난이나 환난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장공동체’ 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주님은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공동체’ 로 초청하신다. 그래서 ‘땅의 빵’ 과 ‘하늘의 빵’ 으로 먹이신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환대하는 최상의 징표(Sign)이다.¹⁸⁷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최상의 징표 역시 잔칫상을 차려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⁸⁸ 주님의 식탁은 제자들을 초대하며 환대하는 ‘생명의 식탁, 구원의 식탁공동체’ 였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식탁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로의 초청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식탁공동체’ 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역사, 구원역사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연한 개인주의적 신앙, 이기주의적 신앙, 황금만능주의 신앙은 ‘식탁공동체’ 라는 목장사역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부부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신앙생활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며, 그래서 교회를

¹⁸⁷ William H. Willimon, *Sunday Dinner: The Lord's Supper and the Christian Life by The Upper Room*, 정다운 역.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24.

¹⁸⁸ Ibid.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신앙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원리대로 행할 때 가정과 교회공동체는 건강하며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지속되듯이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A. 요약

하나님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Key Word)이다. 에덴동산의 식탁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식탁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식탁의 회복과 다시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그 식탁을 찾아 옮기는 타락과 모세의 출애굽을 통한 하늘 식탁의 회복, 그리고 가나안 입성 후 다시 땅의 식탁으로의 타락, 그리고 예수를 통한 천국 식탁의 온전한 회복은 곧 우리가 이 땅의 식탁에서 하늘 식탁을 경험하며, 이 땅의 식탁이 전부 아니라 하늘 식탁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식탁공동체에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통으로 경험하는 기쁨의 초청이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식탁공동체로의 부름과 초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장공동체 사역은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사역이요, 주님의 몸 된 교회공동체가 바로 ‘식탁공동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언하는 사역이다. 식탁공동체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인은 그 식탁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주님은 아직도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을 그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초청의 사명을 위탁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식탁공동체’는 바로 ‘목장공동체’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식탁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식탁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의 만남과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에서 베풀어지는 ‘식탁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기쁨을 맛보는 ‘신비의 자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장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장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도구이다. 정리하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식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의 순서는 ‘에덴 식탁공동체 ⇒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과 고난 ⇒ 아브라함의 식탁공동체 회복 ⇒ 야곱 후손들의 죄로 인한 타락과 애굽의 고난 ⇒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의 식탁 회복 ⇒ 가나안 정착과 고난 ⇒ 예수 그리스도로의 식탁의 회복 ⇒ 천국 식탁의 기다림’이라는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식탁공동체를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장공동체, 곧 목장교회를 세우는 당위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오늘 ‘With Covid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무너지고 닫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처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육신 교회와 선교적 교회와 더불어 목장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고찰하였다. 하나님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식탁공동체에서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교회와 공동체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각 마을의 식탁공동체를 살펴보고 연구자가 시무하는 청주서남교회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경적 개혁과제와 그 실천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성도들을 소그룹인 목장의 식탁공동체로 부르고 그 목장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공동체가 어떻게 지

킬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B. 제언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때가 바로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때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흠어지기 위해서이다. 흠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흠어진 교회가 되어서 그 흠어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은혜에서 ‘삶의 변화’ 를 일으키기 위한 필수과정이 바로 ‘목장 사역’ 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 를 받은 성도들이 목장사역을 통해서 상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 목장 사역은 단순한 예배나 성경공부가 아니라 삶의 코이노니아, 영적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목원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과 삶’ 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목장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 로 변화 받게 된다. 각 목원들은 목장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던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의 시작이다.

‘COVID-19’ 으로 인한 세계인들이 입은 심리적 불안과 장애는 소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라는 우울증을 가져왔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많은 성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에 발걸음을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멀어

지며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¹⁸⁹ 한국에서는 6만여 교회 중 1만여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직도 교회의 예배는 정부(방역 당국)의 인원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을 언제 회복할지 의문이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거쳐 ‘제20대 대선 정국과 한국교회’ 자료를 발표했다.¹⁹⁰ 기사연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수행한 통계를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¹⁹¹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물음에 개신교인의 72.5%는 ‘부정적’ 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비율은 10.5%로 부정적 답변의 7분의 1에 그쳤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의미이지만,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의 7배가 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 갱신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연은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란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특히 더 높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부정적’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데이터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과연 어떻게 복음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 인식속에서 소그룹인 ‘목장공동체’가 건강한 ‘목장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Beyond Covid-19’ 시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경적 대안이라고 믿는다. 연구자의 교회에서 구역조직에서 남녀 성도들이 다 같이

¹⁸⁹ 연구자가 사역하는 청주서남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장년 출석 성도가 12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를 감안하면 약 84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 정도의 교인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¹⁹⁰ <http://news.kmib.co.kr/article>. 2022. 2. 5. 30.

¹⁹¹ 표본은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인구 기준으로 비례 할당 추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라고 밝혔다.

참여하는 목장으로의 전환은 성도들 간의 친밀감과 유기적이며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가져왔다. 목장교회를 통해 개인간의 신앙의 지지와 격려, 도움은 진정한 교회의 맛을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하다.¹⁹² 이러한 목장 사역은 교회 전체 사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성인은 약 600명, 다음 세대 자녀들은 약 200명이 등록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록 교인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2020년에도 60명이 등록했으며, 2021년도에는 56명이 등록했다. 이렇게 등록된 새 신자는 2020년에 94%, 2021년에 99% 라는 경이로운 정착율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등록된 새 가족이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목장 사역’ 이다. 소그룹 모회를 통해서 새 신자가 보다 빨리 교회공동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이전의 교인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를 위한 교인(Saint for Church)’ 구조였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성도를 위한 교회(Church for Saint)’ 로 전환 중이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도들은 교회공동체를 세우며 섬겨 나갈 것이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를 열망하고 있다. 자신의 권위와 권리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가 있고, 또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리듬(Social Rhythms)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를 열망한다. 또한, 해외 선교를 지속하고, 성도들의 일상에 그들 자신을 선교 또는 보내는 자로 훈련하는 헌신 된 교회를 열망하고 있다.¹⁹³ 또 성경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목장공동체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18:12)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성

¹⁹² <http://news.kmib.co.kr/article,2021.4.27.30>. 연구자와 국민일보의 인터뷰.

¹⁹³ Michael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gement*, 최형근 역, 「성육신적 교회」, 13.

도 한 영혼' 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단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숫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했다. 그 제자들은 단순한 무리가 아닐 예수로부터 선교의 유전자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¹⁹⁴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사역과 같이 선교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소그룹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육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 헌신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 목장공동체는 바로 예수 제자들의 모임을 그 모델로 해야 한다. 최대 12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구성원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어야 하며,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 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목장공동체의 목원들이 '예수의 제자들' 로 양육될 때 그 목장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목장교회' 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COVID-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공동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대 단위의 사역들을 소그룹중심으로 빨리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장공동체(교회) 사역은 모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또 다른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삶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¹⁹⁴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36.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통독원, 2010.
-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 2003.
- 김인식,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서울: 두란노, 2021.
- 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김병삼, 「올라인 교회」 서울: 두란노, 2021.
- 박영호,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서울: IVP, 2021.
- 박영호,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에 담긴 시민공동체의 유산과 바울의 비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영호, 「다시 만나는 교회」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 이평강, 「셀리더 순장 목자 도움서」 서울: 두란노, 2019.
- 이성희, 「디지털 목회리더십」 서울: 규장, 2000.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1.
- 정용섭, 「설교와 선동사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차정식,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 서울: 짓다, 2015.
-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2. 외국서적

Brierley, Walter. *The Document of Vatican*. American press, 1966.

Darrel L. Gud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amns, 1998.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David Bosch, *The road to Missional*. Grand Rapids: Baker, 2022.

Eward H. Hammett and Loren Mead, *Gathered and Scattered: Equipping Believers for the 21st Century*. Macon, G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inc, 2005.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Colorado spiring; DavidD C. Cook, 2009.

McGavran, Donald A, and Winfield C. Arn. *How to Grow Church*. California: Regal Books Division, 1975.

3. 번역서적

Allport, Gordon W. *Individual and His Religion*. 「인간의 종교: 신앙의 종교 심리학적 해석」 박근원 역. 서울: 양서각, 1985.

Craig Van Gelder.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최동규 역, 서울: CLC, 2015.

Darrel L. Gudder,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 - 북미교회 파송을 위한 비전」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1.

Christoper J. H Wright,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4.

Dever, Mark. *Nine Marks od a Healthy Church*.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Francis A. Schaeffer. *True Spirituality*. 「진정한 영적생활」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

씀사, 1988.

Henrich Arnold. *Discipleship*, 「공동체 제자도」 원충연 역. 서울: 흥성사, 2010.

Hermann Gunkel. *Die sagen Genesis*, 「창세기 설화」 진규선 역, 서울: 감은사, 2020.

J.C Hokendiik, *The Church inside out*, 「흠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John C.Lennox. *as whew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

님은 어디에 계실까」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William H. Willimon. *Sunday Dinner: The Lord' s Supper and the Christian*

Life by tThe Upper Room,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다운 역. 서울: 비아, 2021.

Larry Crabb. *Bcomn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

체」 김영희 역. 서울: IVP, 2013.

Michael Frost. *Incarnt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Disengaement*, 「성육신적 교회」.

최형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Philp Yancey. *What '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윤중식

역. 서울:IVP, 1999.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2.

Reinhold Niebuhr. *Man' s Nature and his Communités*.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들」 오희천역.

서울: 중문화사, 2016.

Robert J. Banks. *A Day in the Worship of a first Century Christian*. 「1세기 교회 예

배이야기」 신현기 역. 서울: IVP, 2017.

Robert J. Banks. *A Day in the Life of a first Century Christian*. 신현기 역. 「1세기 그

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서울: IVP, 2018.

Robert J. Banks. *A Day in the Life of a first Century Christian*. 신현기 역. 「1세기 그

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서울: IVP, 2020.

Robert Bankst. *Paul' s Idea of Community*,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Tom A. Steffen. *Passing the Baton*. 「타문화권 교회개척」 김한성 역. 서울: 토기

장이, 2011.

4. 학위 논문

이종성.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한 연구.”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

대학교, 1990.

최방은, “선교적 교회론에 따른 지역교회의 선교방향 연구”, 미간행 목회신학박사학위논

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김형일, “선교적 교회론의 도시 지역사회 적용 방안”, 미간행 목회신학박사학위 논

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5. 학술 논문

김영동, “개혁교회의 리더십,” 고재길 편집 「개혁교회의 목회리더십과 16세기 신학교육 -제9,19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109-177.

6. 신문. 인터넷

「국민일보」, 2021. 4. 9. 33.

「국민일보」, 2021. 4. 24. 19.

「한국성결신문」, 2021. 10. 10. 1.

「국민일보」, 2021. 12. 10. 27.

「국민일보」, 2022. 1. 26. 30.

「Nocut News」, 2021. 2, 5.

“평신도가 바라본 교회 문제.” 「기독교공보」, 2020. 8. 1.

“한국교회 성장 마이너스시대.” 「기독교공보」, 2006. 6.1.

<https://chlekgml10.tistory.com>

<https://www.bing.com/search=오이코스>

[https://blog.naver.com/π\(혜트\)](https://blog.naver.com/π(혜트))

<http://naver.me/5Y10vydp>

<https://www.myloveisrael.com/683>

<http://news.kmib.co.kr/article/view.2018-01-24>

[https://blog.naver.com/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문서가설](https://blog.naver.com/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문서가설).

<https://www.bing.com/search=오이코스>

[hugurdian.com/world/2020/mar/13/fist-covid-19-case-happened-in November-china-government-records-show-report](http://hugurdian.com/world/2020/mar/13/fist-covid-19-case-happened-in-November-china-government-records-show-report) (accessed 23 Mar, 2020).

www.gapck.org

www.pck.or.kr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eungkwon Jang

Place and Date of Birth: chung cheong, South Korea, Jan. 02, 1968

Parent`s Names: Insoon Jang and Aejuo Hong

EDUCATIONAL INSTITUTIONS

Name	Address	Degree	Date
Cheonan jungang High School	Cheonan City, South Korea.	Dipoloma	Feb 16, 1986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B. A.	Feb 8, 1991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M. Div.	Feb 22, 1994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Th. M	Feb 12, 2004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Ph.D(Cand)	Feb 15, 202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ungkwon Jang

Name typed

Feb 17. 2022

Date